

VOL.92

Sulwhasoo

VOL.92 SUMMER 2019

Sulwhasoo

Sulwhasoo

SUMMER 2019





Kiri-Tray Table / 손상우
한지, 레진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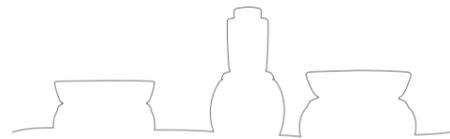
안개는 장르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새벽의 정령이다. 아트퍼니처 작가로 활동 중인 손상우도 마음에 스며든 안개 속에서 영감이 피어났다고 한다. 작업에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떠난 일본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아침 안개 자욱한 정원, 그 고요하고 환상적인 장면은 답답함을 견어주었고, 'Kiri-Tray Table'은 안개처럼 은은한 빛을 머금은 자태를 드러냈다. 안개를 표현하기 위해 찢은 한지를 틀에 배치하고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형태는 소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 전통 이미지를 미니멀하게 완성했다. 일본에서 진행된 '마루누마 예술의 숲'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한 3개월 동안 만들어진 까닭에 일본어로 안개를 뜻하는 'Kiri'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손상우 작가는 한국 전통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해외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작업을 위해 고심한다. 목공을 전공하고도 나무에만 매달리지 않고 새롭고 현대적인 소재를 시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겹겹이 쌓여갈 그의 시행착오들이 소반 시리즈 'Kiri-Tray Table' 이후 작업을 고대하고 기대하게 하는 흐릿한 이유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The fog is the spirit of dawn that has inspired countless artists of different genres worldwide. Artist Sang Woo Son, who is an artist at Art Furniture, was also inspired by the fog that touched his heart. He traveled to Japan when he was struggling, and he happened to visit a garden engulfed in fog early in the morning. The calm and fantastic scene took away the fuzziness in his mind and it became an inspiration for 'Kiri-Tray Table' with the subtle radiance of the fog. He mounted torn pieces of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on a frame and injected epoxy resin to express the fog, and the shape has modernly reinterpreted Soban to represent a traditional Korean image in a minimalistic approach. It was named 'Kiri', which means fog in Japanese, as it was created during the three months that he was participating in the 'Marunuma Forest of Art' Residence Program in Japan. However, Son is dedicated to expressing the traditional identity of Korea in a way that is naturally appealing to anyone abroad. Although he majored in Carpentry, he is not one to shy from trying out new, modern materials other than wood for his works. The layers of trials and errors that he experienced will be included in his future creations after 'Kiri-Tray Table' of the Soban Series.

설화수 헤리티지에 빛나는 인삼의 강인한 에너지
자음생 라인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강화된 인삼 결정체가 피부의 힘을 키워 탄탄하게 깨어나는 피부 활력을
선사합니다. 자음생 라인으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이 실현됩니다.

The new and improved ginseng essence fortifies
the skin's natural regenerating and defense capacities to replenish vitality.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realizes true anti-aging effects.



Sulwhasoo

SUMMER 2019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귀한 원료를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고,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의 진귀한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어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내면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내면과 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브랜드, 설화수.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피부 균형을 다스리는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한 효능 원료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프랑스까지 전 세계 12개국에 진출, 아시아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offers the ultimate skin solution that treats the skin from within by incorporating modern skin science into legendary ingredients infused with timeless Asian wisdom and presents holistic beauty to restore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The Sulwhasoo brand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pursues beauty reminiscent of nature with precious natural ingredients and delivers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by creating beauty from the inside out. Sulwhasoo globally promote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with the JAUM Balancing Complex™, an optimal blend of five ingredients, carefully selected from more than 3,000 medicinal herbs, Korean ginseng, the legendary ingredient that makes Sulwhasoo's unique formulas even more special, and Sulwhasoo's cutting-edge Bio-conversion Technology™. As of 2019, Sulwhasoo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Asian Beauty Creator, operating in 12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South Korea, Mainland China, Singapore, Hong Kong(China),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the US, Canada and France.

Sulwhasoo

VOL.92 SUMMER 2019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발행일·2019년 7월 1일(통권 제92호)
발행인·인세홍 편집인·강병영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이응주, 이슬, 전해미)
제품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디자인·가야 미디어 02)317-4921 편집·박효성, 민소연 디자인·이영보
사진·GURU visual 02)747-6123 시스템 출력·덕일 인쇄 (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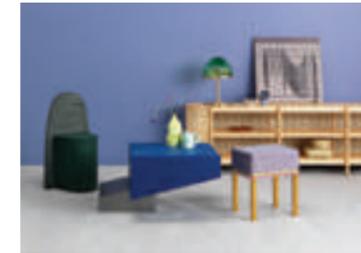
펼 치 다

- 08
설화지혜
몸과 마음을 다듬는 향기로운 정화
- 12
피부 섬기기
남성의 품격을 완성하는 시간
- 16
新 장인을 만나다
레진과 한지로 빚어낸 '안개'
- 22
공간미감
사라짐을 붙잡아 지키는 그 마음
- 28
건너다
아시아의 지혜로 아름다움의 문을 열다



누 리 다

- 36
설화인
계속 나아가고 나아가는
- 44
어우러지다
소르르 시원하게 누리는 여름
- 50
설화풍경
단순하지만 깊은 이상
- 54
설화보감
여름의 묘약, 국수
- 60
아름다운 기행
동화 속 마을을 걷다
- 66
설화수를 말하다
여름의 맑은 하루, 빛나는 지혜
- 72
설화공간
오감을 일깨우는 향기로운 여름
- 74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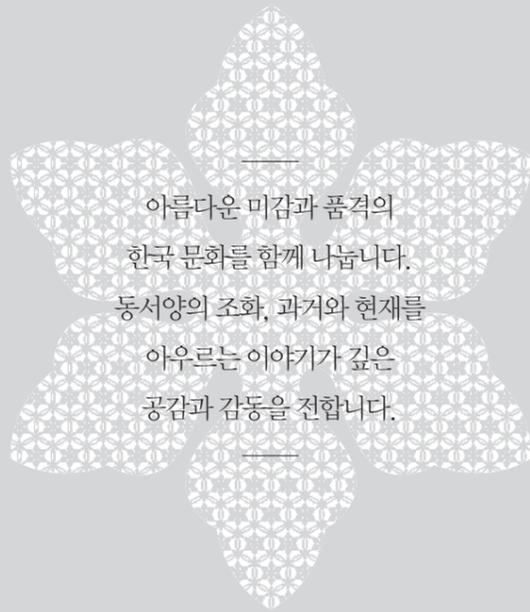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잠이 소름소름 꿈이 알록달록
- 82
한국의 멋
물 한 잔도 허투루 두지 않고
- 84
설화애장
꿈결같이 반짝이던 족두리의 행방
- 86
읽다
휴과 건축의 만남과 확장, 그 가능성
- 90
집 안 단장
바람이 머무는 풍경
- 92
몸 단장
작열하는 태양 아래



- 94
프로덕트맵
- 97
문화 즐기기
- 98
독자 선물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펼치다

몸과 마음을 다듬는 향기로운 정화 The Fragrant Purification to Refine the Body and Mind

시원한 물에 몸을 식히거나, 이열치열로 땀을 내는 목욕은 여름을 건디게 하는 좋은 방안이다. 더구나 예부터 전해지는 목욕법에는 여러 병증을 없애고 고운 피부를 지킨 지혜가 가득하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지금 우리에게도 목욕이 일상의 중요한 하나가 되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몸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과다. 하지만 과거 선인들에게 목욕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세신 洗身'보다는 '목욕재계沐浴齋戒'와 같은 종교적 의미가 깊었다. 불교적 가치가 드높았던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목욕은 수행과도 같았다. 세속의 더러움을 털어내고 정신을 맑게 다듬듯 몸도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특히 고려인이 목욕을 수시로 즐겼다는 것은 유명하다. 더운 여름이면 하루에 두 번씩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시냇가에서 목욕을 했다고 전하며, 왕실에서는 향유를 사용해 더욱 화려한 목욕 문화를 즐겼다.

한편 성리학이 국가 이념이었던 조선시대의 목욕은 '예법'과 '치료'의 목적으로 행해졌다. 나신을 보이는 것도 예법에 어긋난다 하여 목욕 전용 가운을 입고 부분적으로 씻었으며, 전신욕은 연례행사와도 같았다. 음력 3월 3일인 삼짇날, 5월 5일 단옷날, 6월 15일 유뒸날 등 날씨가 풀린 봄에서 여름 사이에 주로 목욕을 했는데, 특히 단옷날에는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물가에서 물맞이를 했다.

Bathing is a significant part of our everyday life. It is a daily routine to cleanse our body at the start and end of the day. Furthermore, bathing was more of a religious observance for the ancestors than personal hygiene. It was a part of their daily discipline when Buddhism was strictly pursued, from the Age of the Three Empires to the Goryeo Dynasty. They sought to maintain the cleanliness of the body just as they cleared the mind of worldly filth. It is well known that the people of Goryeo have enjoyed bathing every now and then. They enjoyed bathing by the stream twice a day on hot summer days, and the royal families used aromatic oils for a more glamorous bathing.

Bathing during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built upon the principles of a rather rigid Confucianism, was performed for 'ceremonial' and 'treatment' purposes. They believed that it was not proper to show their naked bodies, so they wore bathing gowns to partially wash themselves. Full-body bathing was a yearly event. People enjoyed bathing mostly between the late spring and summer on Samjitnal (March 3), Dano (May 5), or Yudutnal (June 15) of the lunar calendar. On Dano, in particular, they used Acorus calamus water to wash their hair and body.



펠프로 만든 종이 그릇은 모두 김누리, 오상원 작가 by JAERYO. 분홍색 자개 트레이는 픽트 스튜디오, 분홍색 볼은 김남희 작가, 분홍색 컵은 정지원 작가.

조선시대 궁 안에서는 왕자가 태어나면 3일째에 첫 목욕을 시켰다. 그 목욕물은 매화, 복숭아, 오얏 나무 뿌리, 호두 등을 끓여 땀띠지의 쓸개즙을 섞어 만들었는데 여기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추운 겨울을 견디는 매화의 생명력,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복숭아, 땀띠와 같은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으며 '이씨 조선'을 상징하기도 하는 오얏, 두뇌 활동에 좋은 호두 등이 새로 태어난 생명의 건강과 행운을 축원하는 것이다. 게다가 돼지 쓸개는 웅담과 비교할 만한 약재로 살균과 염증 제거에 탁월하니, 선인들의 지혜가 놀라울 따름이다.

이처럼 지체 높은 가문이나 왕실에서는 피부를 곱게 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약초나 열매를 넣은 목욕물을 사용했다. 난초를 넣어 달인 물을 목욕물에 섞는 난탕은 피부를 희고 부드럽게 해주며, 그 은은한 향기가 전신에 스며들어 특히 여인들에게 사랑받았다. 향기로운 유자 열매나 복숭아 잎, 인삼 잎, 매화와 동백꽃 등을 우려 희고 고운 피부로 가꾸고 종기와 같은 피부병을 치료하기도 했다. 서양의 풍속과 마찬가지로 우유와 꿀을 이용해 세안과 목욕을 했다는 기록도 전한다.

설화수의 바디워시와 바디로션 역시 동양의 옛 지혜를 모아, 목욕 후 피부를 더욱 아름답게 가꿔준다. 매화꽃 추출물과 한방복합체 지선체™가 피부를 더욱 탄력있고 건강하게 만든다. 또한 해송자 오일의 촉촉함이 은은한 백은향과 더불어 오래오래 지속되어, 목욕이 주는 진정한 치유와 정화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 S

During the Joseon Dynasty, a newborn prince was bathed on the third day. The bath water was made by boiling plum blossoms, peaches, plum tree roots, walnuts, and so on, and then mixing it with a wild hog's bile. This was a very meaningful ritual. The plum blossoms symbolized the vitality to withstand the harshness of winter; the peaches symbolized a long, healthy life, and healthy skin, the plums symbolized the 'Joseon Dynasty of the Yi Family', and the walnuts, which are also good for the brain, symbolized the health and good fortune of the newborn. The wisdom of the ancestors is truly amazing given the fact that the bile of a wild hog is as effective as the gall of a bear when it comes to its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functions.

Noble or royal families bathed in water filled with herbs or berries to refine the skin and treat diseases. The bath with orchid water was popular among women for brightening and smoothing skin, as well as infusing the body with the subtle scent of an orchid. They also brewed the fragrant Yuzu fruit, peach leaves, ginseng leaves, plum blossoms, and camellia for a brighter, more refined skin, and for treating skin diseases, such as abscess. It is also reported that they used milk and honey for cleansing and bathing themselves as they did in the West.

Sulwhasoo's body wash and body lotion also applied the ancient Eastern traditions to beautify and refine the skin after bathing. Korean herbal medicinal complex, JISUN Firming Complex™ makes the skin stronger and healthier. In addition, the evening primrose oil moisturizes along with the subtle scent of Gold Moment, so that you can enjoy the moment of true healing and purification while bathing.

설화수 바디워시 백은향

매화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고, 미일드한 젤 포뮬러가 피부에 촉촉함을 남기는 바디워시로 설페이트-프리 젤 포뮬러가 조밀하고 풍성한 거품을 피어내 몸을 부드럽게 클렌징해준다. 도통한 발림성과 즉각적인 보습감이 깨끗하고 은은한 백은향과 더불어 오래 지속된다.
250ml 4만원

설화수 바디로션 백은향

목욕 후 전신에 부드럽게 펴 바르면 산뜻한 사용감으로 건강한 탄력과 윤기를 선사한다. 섬세한 정화를 느끼게 하는 백은향이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준다. 한방복합체 지선체™와 해송자 오일이 피부 장벽 강화와 보습, 탄력에 도움을 주며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과 내추럴 글로 효과가 더 어리고 반짝이는 피부를 연출한다.
250ml 6만원



도자기 컵과 볼은 모두 오선주 작가.

남성의 품격을 완성하는 시간 The Time to Perfect the Image of Men

노화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피부 근본을 탄탄하게 다스려야 한다. 특히 여성보다 피부 회복이 더딘 남성은 노화의 징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아시아의 철학과 지혜를 담아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는 남성을 위한 피부 관리에도 세심한 정성을 기울인다. 안팎에서 받는 자극과 손상으로부터 회복이 더딘 남성의 피부는 노화가 시작되면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며 칙칙해지기 시작하는데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피부 재생력을 저하시켜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설화수는 이를 개선하고 남성 피부 본연의 재생력을 길러주기 위해 설화수맨 본운에센스에 고귀한 처방을 담았다. 3,000가지 약재를 거르고 걸러 남성 피부에 좋은 5가지 한방 성분을 엄선한 뒤 귀하게 달인 '정양단'을 비롯해 인삼과 맥문동, 가시오가피에서 추출한 성분이 피부에 활력을 주고 윤たく하게 다스려 재생력을 강화한다.

심신을 안정시키는 '오리엔탈 우디' 향기로 마음의 품격까지 높인다. 손에 닿었을 때 먼저 퍼지는 솔향은 청아한 기운을 선사하고, 얼굴에 바르면서 신비롭고 고귀한 침향을 맡으며 활력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깊고 풍부한 나무 향기인 백단향이 마음을 편안하고 차분하게 가라앉혀준다.

Sulwhasoo pays close attention to men's skincare and presents the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with Asian philosophy and wisdom. Men's skin slowly recovers from internal and external stimuli and damage, so aging accelerates once it starts. The skin begins to lose resilience and form wrinkles and dullness. The male hormone, testosterone, reduces its regenerating capacity to speed up aging. Sulwhasoo has captured a precious formula in Sulwhasoo Men's Inner Charging Serum to refine and fortify the natural regenerating capacity of men's skin. It is formulated with 'Jeongyangdan', which is brewed with five carefully selected Korean herbal medicinal ingredients sorted from 3,000 ingredients, and mixed with the extracts of ginseng, Dwarf Lilyturf, and Acanthopanax senticosus to revitalize and refine the skin for a natural regenerating capacity.

The tranquilizing 'Oriental Woody' scent even enhances the quality of the mind. The scent of pine is first diffused for a purifying sensation, and you will feel invigorated with the miraculous



펠프로 만든 검은색 종이 그릇은
김누리 X 오상원 작가 by JAERYO.
베이지색 페인트 벽과 바닥은 'DE6213'으로
던에드워드 논현점



본윤에센스

'정양단'이 남성 피부 본연의 자생력을 강화해 주름과 탄력, 칙칙함을 관리하는 워터 젤 타입의 안티에이징 에센스다. 인삼 추출물은 피부에 활력을 부여하고 맥문동 추출물은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한다. 솔향, 침향, 백단향을 바탕으로 한 깊고 풍부한 우디 향은 품격과 여유, 안정감을 선사한다. 140ml 7만3000원

바쁜 일상 속에서 피부 관리에 소홀하기 쉽고 다양한 기능의 제품을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는데, 설화수맨 본윤에센스가 이런 번거로움을 듬직하게 해결한다. 먼저 워터 젤 타입의 제형으로 수분 보유력이 뛰어나고 손에서 흐르는 불편함이 없어 세안 후 첫 단계에서 사용해도 깊고 풍부한 촉촉함을 선사한다. 바르는 순간 터져 나오는 풍부한 수분감은 더위에 지친 피부에 청량함을 전한다. 피부 자생력 강화와 노화 징후 관리는 '정양단'과 인삼, 맥문동 등의 정성어린 처방이 담당한다. 면도 후 피부가 손상되면서 높아진 혈류량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어 더욱 든든하다. 남성의 신뢰감 있는 어깨 라인을 상징하는 디자인과 정교한 장인의 손길을 담은 금속 소재의 사용으로 품격 있는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매력도 품고 있다. 세안 또는 면도 후 적당량을 덜어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땅을 다지듯 부드럽게 눌러 흡수시키면 피부 근본을 단단하게 다져주고 피부 자신감을 세워 흔들림 없는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간직한 피부로 거듭난다. S

scent of aloeswood as you apply it on your face. Finally, the deep and rich scent of white sandalwood will comfort and calm your mind.

Most men are not paying enough attention to their skin because of their busy daily lives, and they are not fond of using various products for different purposes. Fortunately, Sulwhasoo Men's Inner Charging Serum is a reliable solution for everyone. First, the water-gel type formula retains an enormous amount of moisture, and it does not slide off your body. You can use it in the first step after cleansing for a deep and thorough moisturization. Immediately after application, the rich moisture bursts to cool off the heat of men's tired skin. The devoted formula of 'Jeongyangdan', ginseng, and Dwarf Lilyturf fortifies the skin's natural regenerating capacity and anti-aging control, and improves blood circulation when the skin is damaged after shaving. The design symbolizes men's burly shoulders, while the metal material elaborately shaped by a master charmingly conveys the sense of dignity. After cleansing or shaving, dispense an appropriate amount of the product and gently press the skin from the center to the contours to strengthen the skin's foundation for a timeless, natural, and healthy-looking skin.

한지와 대나무의 멋을 느낄 수 있는 합죽선은 국기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김동식 장인의 작품.

**설화수맨
사용 순서
Sulwhasoo Men
Skincare Routine**



리프레싱 클렌징폼 → **본윤에센스** → **본윤유액** → **본윤크림** → **릴렉싱 UV 프로텍터**

남성들도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피부를 원한다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섬세한 거품으로 모공 속에 있는 피지와 미세먼지 등의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하고,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주는 본윤에센스와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본윤유액은 탄탄하고 활력 넘치는 피부로 관리해준다. 인삼씨 오일을 함유한 본윤크림은 좀 더 집중적인 보습을 선사한다. 릴렉싱 UV 프로텍터를 통한 자외선 차단은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모두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다.



레진과 한지로 빚어낸 ‘안개’

Son Sang Woo

손상우 아트퍼니처 작가

그의 작품들엔 공통점이 있다. ‘이질적 물성의 조합’과 ‘전통과 현대’, ‘불투명성’이란 분모를 공유한다. 그리고 그 화살표는 ‘안개’라는 그의 일관된 테마를 가리킨다. 작가 손상우는 안개로 인식한 불확실성의 세계를 작품 속에 녹여내고 있는 것이다. 가구가 소비재에서 예술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믿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글 최태원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우선 전통 한지와 합성수지 레진(resin)의 이질적 조합을 어떻게 구상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에서는 목조형 가구를 전공했죠. 그렇게 일반적인 작업을 해오면서 일종의 결핍을 느껴, 저만의 표현 방식에 적합한 새로운 소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업의 테마로 삼은 ‘안개’의 불투명한 효과를 표현하면서, 한지의 다펀 텍스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소재가 레진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작업 초기엔 ‘안개는 한국의 백색’이라는 생각 때문에 백색 위주의 작업만 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컬러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벤치 시리즈’의 경우 한옥의 주춧돌과 대들보를 차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원 재학 당시 교수님, 선배들과 함께 고찰 등을 찾아 답사를 다니곤 했죠. 그러다 난생 처음 도산서원을 방문했는데, 문화해설사로부터 한옥의 대들보와 주춧돌의 기능과 조형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는, 이전까지 막연하게 갖고 있던 한옥에 대한

What inspired you to come up with the heterogeneous combination of traditional Korean paper and synthetic resin? I majored in wooden furniture in college. I discovered that the ordinary process was not quite fulfilling, so I found a new material that was suitable for my way of expression. In using that process, I expressed the translucency of ‘fog’ and discovered that resin is the material that can enhance the texture of mulberry on Korean paper. I worked mostly with white at the beginning because I thought that the ‘fog is the Korean white’; however, I am currently incorporating various colors.

It is especially interesting how you referred to the foundation stones and girders of Korean houses for ‘Bench Series’. When I was attending graduate school, I visited the old temples with my colleagues. For the first time, I visited Dosanseowon and my vague



병산서원 만대루의 대들보와 주춧돌을 본 뒤 한옥의 구조를 가구에 적용했다. 육중한 지붕을 떠받치는 대들보를 벤치의 프레임으로, 주춧돌은 벤치 다리로 표현하고 한지와 레진 소재를 접목하는 실험을 통해 한국적인 미감을 미니멀하게 표현했다.



관념이 깨졌어요. 그리고 병산서원 만대루의 무심한 듯 자연스러운 대들보와 주춧돌을 본 뒤, 한옥의 미니멀리즘에 몰입하게 되었죠. 이후 한옥과 가구의 구조적 콘셉트가 같다는 판단 아래 육중한 지붕을 떠받치고 있던 대들보는 벤치의 프레임으로, 대지와 집의 접점인 주춧돌은 원목집성으로 벤치의 다리에 적용시킨 겁니다.

새로운 시도여서 작업자로서 기술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을 텐데요? 지금의 형태와 색깔을 찾기까지 무수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레진은 다루기 쉽지 않은 소재여서 너무 물러질 수도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 실패의 반복을 통해 현재의 방법을 찾긴 했어도,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혼합과 경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작업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예상한 결과물을 얻기도 힘들니까요. 레진이란 소재가 최근엔 금속과 도자 작업에 두루 쓰이고는 있지만 온도와 계절적

ideas about the Korean houses changed completely when the cultural interpreter told us in detail about the functions and aesthetics of the foundation stones and girders. I focused on the minimalistic Korean houses after looking around the indifferent yet natural foundation stones and girders of Mandaeru in Byeongsanseowon. Believing that the structure of Korean houses is connected with the furniture, the girders that support the massive roof have been turned into the bench's frame, and the foundation stones that bring the ground together with the house into the legs of the bench with natural wood.

Did you face technical difficulties because of a new attempt? I had countless trials and errors before I settled with the current shape and colors. Resin, for instance, is hard to manage, and it can become too

요인에 워낙 민감하거든요. 지금은 적절한 경화제의 양과 적정 온도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된 상태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멀었습니다. 물론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로 또 다른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죠.

표지에 실린 '소반小盤 시리즈'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보다 손에 전해지던 나무의 질감을 좋아해 목공을 선택했죠. 그래서 전지 소반은 오래전부터 다루고 싶었던 텍스트였고요. 작업 초기엔 소반의 판에 턱을 내보는 등 형태적 변주를 시도했는데, 레진은 입체 형태를 만들기 어려워 지금은 면의 결합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일본에서 전시 작업을 하면서 일본 한지인 와시和紙의 다양한 컬러를 수용해 색깔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물론 저의 시그니처는 여전히 백색이지만요.

soft or too brittle. I have accumulated data on the right amount of hardening agent and the right temperature, but it is going to be a long process. I am not going to settle for less. Therefore, I am trying different ways and exploring different paths for the pursuit of something new.

The 'Platter Series' on the cover is truly interesting. Can you provide more insight on this? I decided to work with carpentry because I have always loved the texture of wood. I have wanted to work with Korean-style platters for a long time. Nevertheless, I adopted the various colors of Washi, a traditional Japanese paper, during my show in Japan last year. Although my signature still remains white.

So you could say you've done your solo exhibition in Japan. My solo

개인전을 일본에서 먼저 한 셈이군요? 한국에서 개인전이 올 10월에 예정 돼 있으니, 일본에서 한 전시 <shape of fog>가 제 첫 해외 개인전이 된 셈이네요. 하지만 그런 순서보다 3개월에 걸친 일본에서의 전시 준비 기간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업 여건이 불편한 외국에서 전시를 준비하다 보니, 기계를 이용한 큰 작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로도 활용이 가능한 작은 사이즈의 소반을 만들게 된 것이죠. '소반 시리즈'에 일본어로 안개를 뜻하는 'kiri'란 이름을 붙인 것도 그런 인연 때문이죠.

젊은 작가들을 위한 신당창작아케이드에 입주해 계신데요? 2년째 이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졸업 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공의 시스템을 통해 꾸준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고, 서울문화재단의 전시 기획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저처럼 전업 작가로 출발하는 젊은 작가들에게는 최적의 공간이지 싶습니다.

작가로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요? 항상 정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자 결심입니다. 그런 고민이 태도의 문제라면, 현실적으로 제 작업이 '쓰임새'가 있는 가구인 동시에 아트피스이기도 하다는 점에 갈등이 있습니다. 가구가기 때문에 합리적 가격과 실용적 형태를 추구해야 하는데, 작가로서 저의 지향점이 아트적인 방향으로 쏠리고 있으니깐요. 균형을 잡기가 쉽진 않네요. 해서 최근엔 정답을 찾기 힘든 현실적 고민은 접어두고, 저만의 조형 언어 찾기에 더 열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달력 위에 메모해둔 계획은 10월로 예정된 첫 개인전 준비죠. 하지만 가구가 대물림의 대상에서 소비재를 거쳐 예술의 영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흐름을 직감하면서 작가로서 생각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작업 스타일이 해외에서도 수용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죠. 또 제가 시도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 소재와 현대적 소재의 결합에 대한 가능성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S

exhibition in Korea is scheduled for October, so my exhibition in Japan, <Shape of Fog>, became my first solo show abroad. But regardless from the schedule, the 3 month time spent in Japan for the exhibition preparation was significantly meaningful. I could not create large pieces using the machines because I was not familiar with that area. That is why I developed the portable platters that can also be used as trays. I named my 'Platter Series' as 'Kiri', which means fog in Japanese.

You are staying in Sindang Creative Arcade for the younger artists.

I have been here for two years now. It was an appropriate decision because I was able to secure a studio space after graduation. I am constantly motivated to work through the public systems, and I am able to receive various support from Seoul Foundation of Arts and Culture in regard to curating an exhibition.

What are your concerns nowadays as an artist? My biggest concern and determination is that I should never be stagnant. If this is a matter of attitude, my realistic concern is to find the balance between being 'functional' and 'artistic', since my works are 'functional' furniture and 'artwork' at the same time. I need to follow both reasonable prices and practical shapes because these are furnitures, however I am leaning towards the artistic aspect as an artist. It is not easy to find the right balance, so rather I decided to focus on discovering my own artistic language.

What are your plans for the future? The plan that is marked on my calendar is the first solo show scheduled for October. However, I have many concerns because I have realized that the trend in the furniture industry is shifting from something handed down for generations to commodities and now to artworks. Personally, I am looking for ways to share my art style abroad. I also want to be recognized for the possible combination of Korea's traditional and modern materials.



레진 소재는 너무 물러지거나 깨질 수 있어 다루기 쉽지 않다. 지금의 형태와 색감을 찾기까지 무수한 실패의 반복을 겪었는데 여전히 어렵고 현재도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가구의 쓰임새와 예술성의 균형을 잡기 위해 정체되지 않고자 늘 고민한다.



사라짐을 붙잡아 지키는 그 마음

Korea Furniture Museum

한 국가구 박물관

분명히 현대 서울의 한복판이다. 순식간에 17세기 조선에 떨어진 것처럼, 마당에 들어서면 첫발부터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바깥의 소음마저 아득히 멀어지는 순간, 한국가구박물관은 보면 볼수록 놀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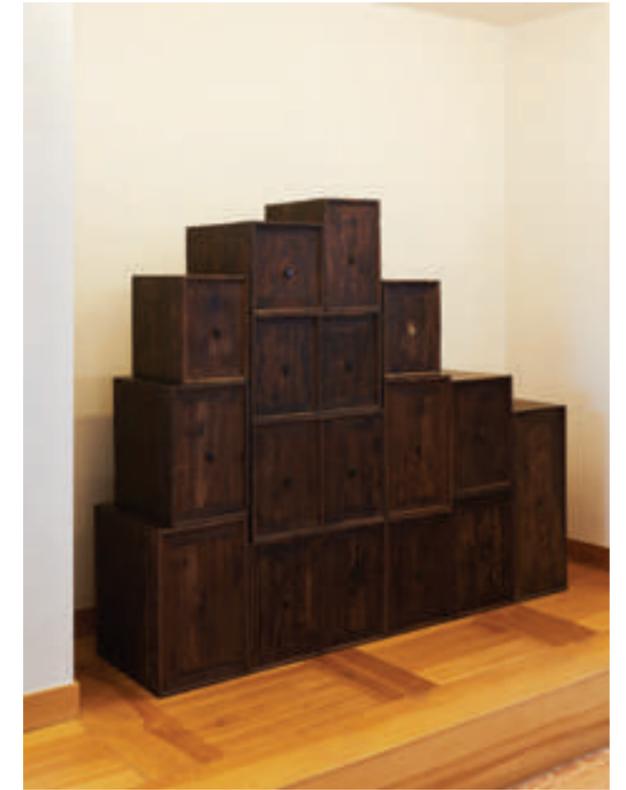
에디터 민소연 사진 박혜숙 도움 주신 곳 한국가구박물관



한국 전통 목가구 2500여 점이 수집, 보존, 전시되고 있는 한국가구박물관은 우리 조상의 고아한 주거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차경借景'의 철학이 곳곳에 녹아 있다.

한국가구박물관은 명칭 그대로 한국의 가구를 모아놓은 사설 박물관이다. 설립자 정미숙 관장이 수집한 2,500여 점의 한국 전통 목재 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열 채의 옛 한옥들이 모여 이루어졌다. 일반인에게 가구는 550여 점 정도 공개한다. 개인 소장품으로서선 어마어마한 숫자다. 정미숙 관장이 본격적으로 수집을 시작한 1960년대는 근대화, 도시화의 물결로 옛것의 가치가 없이 가벼웠던 시절이었다. 오래된 한옥이 헐리고 양옥과 아파트가 경쟁하듯 들어섰다. 세대를 이어오던 가구도 미련 없이 버려졌다. 눈 밝은 누군가에겐 그 긴 시간이 깃든 가치가 쉽게 폐기되는 것이 큰 안타까움이었을 터이다. 정미숙 관장이 그랬다. 그녀는 버려지는 가구와 한옥 자재를 부지런히 모았고 1970년대까지 수집을 이어갔다. 그리고 1993년 사립 박물관을 등록한 후 1995년부터 약 15년 동안 성북동 너른 터에 한국의 옛 가옥 열 채를 옮겨 와 지금의 모습으로 다듬고 가꾸었다. 대문을 들어서서 행랑채와 정자를 지나, 더 들어가면 안채와 아늑한 마당이다. 마사토가 깔린 마당에 비질 자국이 곱다. 선명한 비질 자국은 그 집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알게 하는 상징과도 같았다. 그 옛날 마당쇠들이 밖에서 마사토를 구해 와 마당에 뿌리고 쉼 없이 비질을 한 이유가 있다. 잘그락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한밤중에도 크게 들려, 기특하게도 방범의 기능을 한다. 또한 입자가 무거워 먼지가 날리지 않으며, 물이 잘 빠져 비가 내려도 땅이 질퍽하지 않다. 한국가구박물관은 각자 다른 곳에 있었던 우리 전통 가옥 열 채가 모여 생겨났으나, 마치 처음부터 늘 함께였던 것처럼 잘 어울린다. 건물과 건물, 자연과 건물이 서로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

Korea Furniture Museum is literally a private museum exhibiting Korea's traditional furniture. The founder, Director Mi Sook Jung, has collected about 2,500 pieces of traditional Korean wooden furniture and about 10 Korean traditional houses. She has exhibited about 550 pieces to the public. This is considered as an enormous amount for private collections. The value of old artifacts was extremely low when Director Mi Sook Jung started building up her collection in the 1960s, owing to the wave of modernization and urbanization. Old traditional houses were replaced with Western-style houses and apartments. There was no hesitation in removing the traditional furniture kept for generations. People with brighter insights must have been disappointed in knowing that the value of history was so readily discarded. Director Jung was one of them. She hastily collected the furniture and pieces of Korean houses, and continued building her collections until the 1970s. She registered her private museum in 1993, and moved 10 traditional Korean houses to an open property in Seongbuk-dong for refinement for 15 years since 1995. As you enter the gate and pass Haengnangchae and Jeongja to go deeper, you will soon discover Anchae and a cozy yard. You can see the fine mark of sweeping over the granite soil. The clear mark of sweeping was the symbol of how well the house was maintained. Korea Furniture Museum has collected 10 traditional Korean houses from different locations, but these houses go well together as if they have always been together. The buildings harmonize with one another and with nature which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houses. The yards of Korea were created to imitate landscapes. They did not attempt to alter nature, but



룬다. 이는 한옥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한국의 마당은 '차경借景'의 문화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고치려 들지 않고, 아름다운 경치 자체를 잠시 빌린다는 의미다. 그래서 야트막하게 담을 내어 바깥의 풍경을 고스란히 시야에 들어오게 한다. 창은 풍경을 담아내는 하나의 액자로, 우리 선조는 집에 앉아 창과 문을 여닫는 순간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치를 즐겼다. 이는 여기 한옥 곳곳에서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미덕이다. 안채 방 안 창가에 앉으면 서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풍경이 새롭게 열린다. 아늑한 마당과 낮은 담장 너머 펼쳐지는 마을의 야트막한 지붕들, 그 너머의 기다란 성곽과 또 멀리 남산의 부드러운 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겹겹의 레이어가 만드는 눈부신 그림, 남산타워의 아스라한 형태가 바로 지금이 현대의 서울임을 겨우 알게 한다.

여기에 전시되는 목가구들은 관람자와 어떤 막힘없이 놓여 있다. 일상에서, 우리의 방 안에서 가구가 그러하듯 집과 하나가 되어 배경을 만든다. 유리벽 너머가 아닌, 만져지는 공기가 전한 나무의 질감이 따스하다. 종에 따라 나무의 무늬와 성질이 달라져 그에 맞는 쓰임새를 만든다는 도슨트의 가구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 오랜 세월 유심히 살펴보고 궁리하여 얻은 지혜일 것이다. 오동나무로 만든 책함은 급격하게 탐이 날 정도였다. 한옥과 꼭 닮은 뒤주의 모던한 구조와 디자인도 인상적이었다. 무릇 좋은 만들새에는 대상에 대한 성실한 존중이 반드시 깃들어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 한옥과 고가구의 매력에 취한 채 한국가구박물관 지척에 있는 성락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년 만에 공개된 이 비밀의 정원은 그야말로 자연 속에 숨어 있던 보물이다. 시원한 계곡물 소리와 새의 지저귀이 사방을 온통 채우는 안에서 마냥 머물고 싶었다. 연못에 떠오른 달 그림자와 더불어 시를 짓고 밤을 지새웠다는, 그 풍류가 몹시도 부러웠다. S

한 국가구 박물관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21

예약 홈페이지 www.kofum.com

가이드 투어 소요시간 1시간

관람료 2만원

'고가구'라는 말이 주는 선입견은 이곳에 와서 모두 깨지고 만다. 현대의 가구보다 더 세련된 디자인에 쓰임새에 맞게 오밀조밀 달라지는 합리적인 구조가 감탄을 부른다.

rather borrow the beautiful views as inspiration. The walls were low, so it was easy to capture the views outside. That is the reason why Korean houses have many windows and doors. The windows served as the frames of the natural landscapes, as the Korean ancestors have been known to enjoy views that change every time they open the windows and doors.

This can be experienced from any corner of Korean houses here. A completely different view shows up when you sit down by the window inside the room in Ancha.

The wooden furniture is fully accessible to the visitors without any obstacle. In everyday life, the pieces of furniture become one with the house to create. The docent told an interesting story about the furniture, saying that the right kind of furniture is made out of each species of wood as they all have unique patterns and properties. It would have been a wisdom earned after years of careful observation and contemplation. It was hard to resist my high desire for the bookcase made with Paulownia wood. The modern structure and design of a rice chest that resembled a Korean house was also impressive. It will make you realize that a good design always reflects the maker's sincere respect. Mesmerized by the charm of Korean houses and traditional furniture, I left Korea Furniture Museum and went to Seongnakwon, which was located nearby. This secret garden, which was opened to the public after 200 years, is a hidden treasure of nature. I wanted to stay with the sound of a babbling brook and singing birds for good. I envied the lives of the Korean ancestors who created poems overnight, along with the reflection of the moon on the pond.

아시아의 지혜로 아름다움의 문을 열다 Asian Wisdom Opens the Gateway to Beauty

과거의 고풍스러운 문화와 현대적 호화로움이 조화를 이루며 음식과 쇼핑,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두루 갖춘 태국의 수도 방콕.
이곳에서 설화수가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거대한 문을 열었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셔터스톡





다채로운 매력의 나라, 환한 미소의 도시

태국은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는 바다와 환상적인 자연, 훌륭한 요리와 친절한 미소를 갖춘 외면과 내면이 모두 아름다운 나라다.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 세계 10위 안에 손꼽히는 태국의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곳은 역시 수도 방콕이다. 화려한 궁전과 장엄한 불교 사원을 통해 태국의 전통 문화와 그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주변에 들어선 드높은 고층 빌딩과 거대한 쇼핑몰 등은 현대의 멋을 갖춘 세련된 방콕을 엿볼 수 있다. 비교적 저렴한 여행 경비 덕분에 태국과 방콕의 문화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세계 4대 음식으로 꼽히는 빼어난 맛의 태국 음식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다. 화려한 외관과 태국 종교 건축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왕궁과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인 왓포, 활기 넘치는 수상시장은 빼놓지 말아야 할 방콕의 아름다운 랜드마크다. 모두에게 마음을 열고, 환한 미소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이 점이 설화수가 방콕에서 아름다움을 전하는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내면이 아름다운 방콕 사람들의 순수한 미소와 생기 넘치는 활력은 방콕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들의 미소를 보다 품위 있게 꽃피우기 위해 설화수는 방콕에서 18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진정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A Country of Diverse Charms and a City of Bright Smiles

Thailand is a land of beauty both inside and outside. It is one of the world's 10 most sought-after travel destinations for its sparkling emerald seas, fantastic natural environment, exquisite cuisine, and friendly smiles. You can feel all of its charms at its capital city, Bangkok. The glamorous royal palaces and revered Buddhist temples show the traditional culture and pride of Thailand, while the sophisticated high-rise buildings and massive shopping malls present the city's modern visage. The royal palace with its glamorous appearance is the essence of religious architecture and Wat Pho, the oldest temple in Bangkok, and the water markets that are full of energy are Bangkok's beautiful landmarks that you should definitely not miss. Sulwhasoo can successfully lead its journey of beauty in Bangkok, a city where everyone has an open heart and greets each other with a bright smile.



방콕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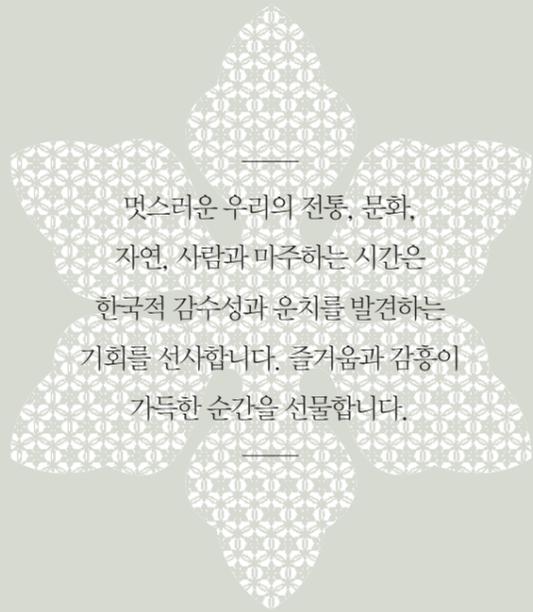
- ① 센트럴 웨스트게이트 Central Westgate
- ② 센트럴 창밧따나 Central Changwattana
- ③ 더 몰 응왕왕완 The Mall Ngamwongwan
- ④ 센트럴 랏프라오 Central Ladprao
- ⑤ 센트럴 이스트빌 Central Eastville
- ⑥ 로빈슨 패션 아일랜드 Robinson Fashion Island
- ⑦ 더 몰 방케 The Mall Bangkai
- ⑧ 센트럴 라마2 Central Rama II
- ⑨ 센트럴 핑클라오 Central Pinklao
- ⑩ 아이콘 시암 Icon Siam
- ⑪ 시암 파라곤 Siam Paragon
- ⑫ 쟈 ZEN
- ⑬ 센트럴 라마3 Central Rama III
- ⑭ 센트럴 치돔 Central Chidlom
- ⑮ 로빈슨 라마9 Robinson Rama 9
- ⑯ 더 엠포리움 The Emporium
- ⑰ 더 몰 방가베 The Mall Bangkapi
- ⑱ 센트럴 방나 Central Bangna

조화와 균형의 철학으로 흔들림 없는 미의 기준을 전하다

방콕은 과거를 품고 현재를 살아가며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는 도시다. 이곳에서 아시아 지혜를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전하는 설화수는 고운 꽃길을 걸어왔다. 2012년 태국 1호 매장이 방콕의 쇼핑 메카 지역인 치돔에 위치한 센트럴 치돔 백화점에 문을 연 후, 2019년 현재까지 무려 18개의 설화수 매장이 오픈했다는 사실로 방콕 고객들의 설화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월에는 태국 최대 쇼핑몰 '아이콘 시암' 내 다카시아마 백화점에 설화수 매장이 입점하며 홀리스틱 뷰티의 격이 다른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방콕 사람들은 더위와 습한 날씨 탓에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기미와 잡티 등의 트러블과 함께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고민을 안고 있다. 한방 원료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탄생한 설화수 제품은 미세먼지와 더운 기후 때문에 지치기 쉬운 피부에 생기와 활력을 선사해 굳건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특히 4월에는 다카시아마 설화수 매장에서 글로벌 스테디셀러이자 5가지 젊음의 지표를 개선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가꿔주는 윤조에센스와 함께하는 행사가 열려, 흐트러지지 않는 피부 균형을 찾는 궁극의 방법을 소개했다. S

Providing an Unwavering Standard of Beauty with the Philosophy of Harmony and Balance

Bangkok is a city that cherishes the past, lives the present, and envisions a beautiful future. Here, Sulwhasoo has been highly successful on its journey to spread beauty based on Asian wisdom. Sulwhasoo has opened a total of 18 stores to date since the opening of its first store in 2012 at Central Chitlom Department Store in Chitlom, the shopping Mecca of Bangkok. This fact alone tells you all about the people of Bangkok's love for Sulwhasoo. Last November, a store was opened at Takashimaya within 'ICON-SIAM', Thailand's largest shopping mall, to introduce holistic beauty on a whole new level. The people of Bangkok are concerned about skin problems, such as loss of their skin's resilience due to the hot and humid weather, age spots, blemishes, and accelerated aging. Sulwhasoo products are created with the combination of Korean herbal medicinal ingredients and unparalleled technology to revitalize the skin that is prone to fatigue due to the fine dust particles and the hot climate, and to win the hearts of the local people. In April, the Sulwhasoo store at Takashimaya hosted an event with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a global steady-seller that improves the five indicators of youth for the skin that glows naturally, in order to introduce the ultimate way to find a skin balance that can withstand any harsh environment.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구
미
다

계속 나아지고 나아가는
Getting Better and Moving Forward

Kim Ji Yoon

정 치 학 박 사 김 지 윤

그녀는 베들레헴의 한 호텔 앞에 있었다. 아티스트뱅크시가 세운 곳이었다. 커다란 벽 앞에서 월드 오프 호텔 (The walled-off Hotel)이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 앞에 세워졌는지 설명했다. 화면 속의 그녀는 해박하면서 공평했다. 감각은 살아있으나 감정적이지 않았다. 절대 길을 잃지 않을 안내자. 그 이후로 김지윤이 화면에 등장하면 마음이 느긋해진다. 의심 없이 경청하면 되기 때문이다.

글 이재영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정치학 박사라는 타이틀은 묘한 선입견을 주게 마련이다. '정치'와 '박사'가 만나는 순간 나와 상관 없는 고담준론高談峻論이나 하는 사람일 거라 여기게 된다. 그러나 김지윤은 달랐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문적이지만 친절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건넸다. 정치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자주 잊는 사람들에게 진짜 정치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정치를 공부하게 된 건 부친의 권유 때문이었다. 본인 역시 이성적이고 냉철한 분야의 학문이 좋았다. 그렇다고 정치학에 대한 기필期必의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학부 시절 정치외교를 공부하고 유학을 떠날 때만 해도 이 학문을 계속하게 될까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석사 공부를 하면서 재미를 느껴 내쳐 박사까지 공부하게 됐다.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가 결국 정치학 박사가 되고, 국제 정세를 알려주는 외교 전문가로, 지금은 국내 간판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는 등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100분 토론>이라는 묵직한 프로그램의 사회를 본다는 건 결정하기 쉽지 않았다. 지금 세대에게 어필할 필요를 느낀 제작진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고민 끝에 수락했다.

“어렵게 시작했는데 정말 굉장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타이틀이 많았는데, 요즘은 어딜 가든 <100분 토론> 진행자로 소개돼요. 매번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가상 시나리오로 연습도 하고 우리나라나 외국의 다른 토론 프로그램들도 챙겨 보며 노력하죠. 처음엔 많이 긴장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국제 정세는 매 시각 바뀌기 때문에 매일 업데이트를 해야 해요. 미룰 수 없는 일이

The title “Ph.D. in Politics” is rather misleading. ‘Politics’ and ‘Ph.D.’ give you an image of a person who always uses big words. However, Ji Yoon Kim is different. She talks about everyday stories like an expert, but in languages that are generally comprehensible to anyone. She is conveying the true meaning of politics to those who often forget that Politics are stories of real people.

Her father recommended the field of Politics. It suited her because she was both rational and cold-headed. But she was not solely devoted to it. She says that she was not certain about the field until she completed her undergraduate studies in Politics and Diplomacy, and left Korea to pursue further studies. She found it more appealing through her graduate studies, so she continued onto taking doctorate studies. She ended earning her Ph.D. in Politics, and hosted one of Korea’s most popular debate shows as a diplomatic expert specializ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Even for her, it was not easy to agree to host such a reputable program, 100-minute Debate. The production team actively persuaded her, knowing that it was important to appeal to the new generation. “I was not sure at first, but it was a great show. I had more than one title, but everyone knows me as the host of 100-minute Debate nowadays. I study the issues each time, rehearse with virtual scenarios, and monitor other debate shows broadcasted in Korea and abroad when I have a chance. I was very nervous at first, but I am getting used to it. The world of international politics changes every minute, so I have to stay up-to-date every day. I cannot be lazy even for one day. They have reached out to me because I am an expert in my field, so it is my duty to give them the right information. I also host a live YouTube show on international politics every week. The show takes place early in the morning,





죠. 전문가라고 방송에서 불려졌는데 제대로 된 걸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매주 새벽에 국제 정세 얘기를 나누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요. 새벽 방송이고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방송을 위해서라도 매일 공부하거든요.”

방송을 시작한 지 4년, 대중과 소통하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은 국제 정세가 절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좀 더 쉽게 전달하려는 것도 생활밀착형 국제 정세 정보를 주고 싶어서다.

“세계 뉴스를 알면 트렌드가 보여요. 내밀한 것까지 분석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판단이 쉬워지죠. 행동을 조심할 시기인지, 자독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시기인지 알 수 있어요.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그럴 때 실수하지 않을 기준이 있으면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의 차원에서 대처가 가능해지니까요. 세계는 정말 넓어요. 우리는 그중 일부고요. 좀 더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세계가 밖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위한 걸음

화려하고 걱정 없이 살았을 것 같은 이미지. 보여지는 것과 달리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애써왔다. 넘쳐나는 고난과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and it entails a lot of work, but I am doing my best. It keeps me working and learning every day.”
It has been four years since the show premiered. What she really wants to tell the public is that international politics is accessible to them. She has chosen a live YouTube show to reach out to the public more easily and give them information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ir everyday lives.
“When you turn to world news, you can keep up with trends. It is hard to analyze the details, but you can get a grip of how the world is doing. Then, it is easier to make judgments. You can determine whether it is time to be cautious, or time to be aggressive. This is the era of uncertainties. Wouldn't your quality of life improve when there are standards to protect you from making mistakes? You can make your own decisions. The world is vast, and we are a small part of it. We need to expand our views a little more. There are different places out there, but we tend to focus on ourselves too much.”

Steps toward the Life of Harmony and Balance

She looks glamorous and carefree, but, unlike her appearance, she has worked hard to survive. She has endured the flood of adversities and stress because of her ceaseless efforts and exploration of various areas of interest without losing her sense of balance. She acted more fiercely when she was mentally under stress, and diversified her interests.

“Living a balanced life was my only goal. International politics is not always good, and not

과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의 탄력이었다. 정신노동이 심하면 몸을 더 열심히 움직였고,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다.

“조화롭게 살기. 유일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국제 정세를 보면 매년 좋지도 매년 나쁘지 않거든요. 좋았다 나빴다 해요. 굴곡이 있죠. 사람 사는 것도 똑같아요. 힘든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굴곡들 사이에서 버티려면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죠.”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던 이유는 그게 다다. 매일 바쁘게 세상 돌아가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시 꺼내 세상에 알리는 사이사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실내 압박장에 가고, 가끔 복싱장에 가서 집중하며 에너지를 쏟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한 학문이 아무래도 남성의 권위가 센 분야라 하는 질문일 텐데 여자라서 힘든 점은 없느냐, 유리 전장을 깨야 하지 않느냐, 불이익은 없었냐. 솔직히 그런 질문을 들으면 좀 화가 나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유학 가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굴곡이 있었다 해도 건득권 세력이에요. 기득권의 정체성은 성 정체성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여성이란 이유로 저에게 심각한 차별은 일어나지 않아요. 훨씬 더 취약 계층에 일어나죠. 여자 박사를 걱정하기 전에 그보다 더한 약자들의 삶을 고민해야죠. 그들도 동등하게 풍요를 즐길 수 있도록요.”

이런 것 또한 세계를 돌아보고 시야를 넓혀야 하는 이유라는 김지운 박사. 그러니 뉴스 많이 보고, 세상일에 관심 많이 가지라고 당부한다. 지금이라도 매일 나아가는 김지운 박사의 걸음에 발맞춰 볼까? 중심 잡고, 조화롭게 세상 속으로 한 걸음씩. S

always bad. It has its ups and downs. That is how life is. There are hardships, and there are rewards. You need balance in order to endure the ups and downs.”

That is the only reason she has kept working. While absorbing what is going on around the world and sharing it with the world again, she goes to an indoor climbing center and a boxing studio to utilize her energy.

“People often ask me, probably because men have more power and authority in this field of study, whether there are any obstacles because I am a woman. I should break the glass ceiling, or I am at a disadvantage. Every time I get these questions, it upsets me. They should not say this to me. Though I have had hardships in this position even after studying abroad, I have always been a part of the ruling class. The identity of the ruling class dominates my gender identity. So I don't experience serious discrimination just because I am a woman. It happens to a weaker class. You have to worry about the lives of the socially weak before you worry about a female doctor. They have the right to enjoy their lives as much as you do.”

Dr. Ji Yoon Kim says that this is another reason why you should travel around the world, and broaden your insights. So she advises you to watch the news and to pay attention to the world. How about moving forward with her one step at a time without losing your sense of balance and harmony?

메이크업 단아(필로에) 헤어 이진(필로에)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모노톡시(1644-4268), 에스카다·에스카다 빈티지가운(02-3444-1708), 스톤헨지(02-3438-6055), 커먼유니크(1688-9308), 캘빈클라인(02-6905-3628)



소르르 시원하게 누리는 여름

대지가 끓어오르는 무더운 날씨를 지혜롭고 아름답게 이겨낸 옛사람들의 여름나가는 지금도 유용하고 유효하다. 대나무, 돌, 유리, 모시 등 시원한 소재로 입고 지어 꾸민 여름 풍경은 작열하는 열기 속에서도 고즈넉하고 기만하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1 굴곡진 형태의 큰 백자 불은 박미래 작가. 2 3D 프린트로 만든 플라스틱 상판을 적용한 사방탁자는 류종대 작가. 3 브라운과 화이트 컬러의 화병은 이지원 작가. 4 다채로운 문양의 화문석 합은 강화도령화문석. 5 거북 받침대의 파란색 일주반은 하지훈 작가. 6 골판지와 시멘트로 만든 등받이 의자 'Criteria'는 전치호 작가. 7 금속과 블루 컬러 목재의 기하학적 조합이 돋보이는 사이드 테이블 'balanced series low table'은 조재호 작가. 8 연두색 구름 형태 화병은 김누리 X 오상원 작가 by JAERYO. 9 하늘색 손잡이 컵은 엄기성 작가 by 제로룸. 10 원초 덮개 스톨은 원초장 전수교육조교 유선옥 X 금속공예가 조영선 by 한국문화재단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11 케인 소재 2단장은 언와인드. 12 초록색 유리 스탠드와 유리 오브제들은 모두 양유안 작가. 13 한지와 실크 레이온으로 작업한 액자 'Permeated_HG'는 최수영 작가. 14 브라운 유리 접시는 전수빈 작가. 15 대나무 도시락 바구니와 원바구니는 모두 남상보 장인 by 디앤디파트먼트 서울.

5



6



7



8



9

11



12



13



14



15



10





가볍게 쾌적하고, 묵직하게 시원한 소재

시원한 소재를 지혜롭게 이용한 옛 방식은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적용해 쾌적한 여름을 날 수 있다. 완초를 엮고 어여쁜 문양을 새긴 화문석과 함 등의 공예품은 여름철 끈적한 수분을 흡수해 쾌적하고 화사하다. 가벼운 대나무 살을 360도로 펼쳐면 바퀴처럼 원을 이루는 부채. 윤선은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시원하고 우아한 멋을 선사하는 벽 장식으로 활용하기 좋다. 한옥의 온돌 또한 여름 동안에는 돌의 냉기가 올라와 시원함을 선사했는데, 돌을 비롯해 금속, 유리 등 차가운 소재의 아이템은 쿨한 여름 인테리어를 완성해준다.



왼쪽 페이지 | 스트라이프 패턴
 화문석은 강화도령화문석, 2 둥근 윤선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8호 선자장 김동식 작가, 3 민트 색 타원형 옷칠 트레이와 자개 장식의 네이비 옷칠 트레이는 모두 박수이 작가 by 수이57아틀리에, 4 주황색 스트라이프 무늬로 포인트를 준 화문석 접시는 강화도령화문석, 5 그릇 안에 유리를 녹여 물이 고인 형상을 표현한 그릇은 김누리 X 오상원 작가 by JAERYO, 6 원형 리탄 쿠션은 블랑드앤젤, 7 투명한 유리 볼 오브제는 양유완 작가, 8 정사각 형태의 완초 트레이는 완초장 이수자 서순임 X 금속공예가 조영선 by 한국문화재단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9 블루 도자기 미니 화병과 베이지 색 저그는 오선주 작가, 10 대나무 디퓨저는 취프로젝트, 11 마미체 차 거름망 세트는 마미체 장인 백경현 X 도예가 오해주 by 취프로젝트

오른쪽 페이지 | 정형화되지 않은 블루 톤 수납 선반은 연진영 작가, 2 거친 표면 마감으로 핸드빌딩 작업의 감성을 담은 백자 볼 '풍경'은 배수연 작가, 3 블루 글라스 테이블은 글린글라스, 4 빛이 비치는 느낌을 프린트한 사이드 테이블 'Printed L'은 박은지 작가, 5 레진과 대리석으로 제작한 의자는 토탈석재 X 픽트 스튜디오, 6 그레이 톤 옷칠 소반은 박수이 작가 by 수이57아틀리에, 7 주병 형태의 백자 화병은 배수연 작가, 8 생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나무 화병과 오브제는 모두 인문수 작가 by 스튜디오루.

*그레이 페인트 벽은 'DE6318'로 던에드워드 논현점.

왼쪽 페이지 1 케인 소재 스탠드는 언와인드, 2 블랙 실크 보료와 공룡 알 실크 쿠션은 모노컬렉션, 3 예시 통원목의 베드 프레임은 베르크플라츠, 4 복두칠성 문양을 푸른 배경에 새긴 부채 '바람을 담다'는 이종국 작가 by 콘콤브르, 5 쪽 염색한 생목사 실크 조각보는 김윤희 작가 by 씹지사랑 규방공예연구소, 6 검정 해주반은 모두 디앤디파트먼트 서울, 7 쓰다 남은 나무 조각으로 만든 작은 검정색 오브제들은 모두 인문수 작가 by 스튜디오루, 8 아래가 뽀족한 형태의 백자 잔과 받침, 화병은 모두 오선주 작가.

오른쪽 페이지 1 등받이가 있는 대나무 소재 자리는 하지훈 작가, 2 푸른 무늬의 'Woven Shade'와 내추럴한 톤의 'Woven wall-hanging', 푸른색 사각 쿠션은 모두 핸드우븐 텍스타일(handwoventextile), 3 라탄 소재 캔들 홀더는 모두 수아트리, 4 원형 라탄 미니 테이블은 블랑드엔젤, 5 현무암에 상감기법을 이용해 옷칠한 오브제 작업은 김정섭 작가, 6 돌과 스테인리스로 작업한 'Boundary' 오브제는 전치호 작가.

*초록색 페인트 벽은 'DE5712', 보라색 페인트 벽은 'DE5914'로 모두 던에드워드 논현점.



여름 바람이 몰래 지나가는 바람길

더운 햇빛은 막아주고 시원한 자연 바람이 드나들도록 설계된 한옥은 에어컨이 없어도 여름을 날 수 있었던 과학적인 건축물이다. 우아하게 뽀은 처마가 강하게 내리쬐는 햇살을 막고 깨끗하게 비워둔 마당의 대류현상 덕분에 대청마루에는 바람이 모인다. 창은 크지도, 작지도 않게 내어 불필요한 햇빛이 들지 않도록 했다. 발을 쳐 햇빛을 가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대나무 평상에 누워 낮잠을 즐기며 더위를 피했다.



단순하지만 깊은 이상

집, 나무, 새, 사람을 소박하고 단순하게 그려 깊은 내면세계를 순수하게 표현한 장욱진 화가는 한국 미술에 큰 족적을 남긴 작가다.
그의 진실된 이상을 담은 장욱진미술관 또한 꾸밈없이 아담하고 솔바람이 조용히 머문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도움 주신 곳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나직한 초록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전부다. 이종섭, 박수근과 함께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장욱진 화가를 기리는 장욱진미술관은 그의 그림처럼 단순하고 간결하다. "나는 심플하다"라고 하던 장욱진의 말을 묵묵히 표현하듯, 나무와 동물과 인간을 품듯 맑고 선하게 서 있다. 이곳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장욱진의 '호작도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닮았고, 화가가 살던 집의 모습도 모티브를 삼았다. 정갈하고 절제된 선과 하얀 색의 공간에서는 화가의 순수한 심성이 느껴지고, 창으로는 운동 푸르른 세상이 내다보인다. 아늑한 평화가 깃든 이곳은 그의 작품처럼 포근한 안식으로 기억에 새겨진다.

세월의 흔적을 지우다. 진설아이크림

노화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눈가 피부에는 진설아이크림과 함께 강력한 안티에이징 관리가 필요하다.
 진설아이크림은 적층의 피부 노화 케어 성분인 DAA를 고농축 함유하여 피부 생명력을 강화해주고, 보령 성분을 더해 눈가 피부의 힘을 길러주어 탄탄하고 또렷한 눈매를 만들기 때문에 눈가의 구조적 노화 고민을 해결해준다. 기존 대비 적층 성분을 더욱 강화하고, 부드러운 발림성과 촉촉한 감촉으로 개선해 업그레이드 출시되었다. 도톰하고 밀착력 있게 감싸주는 텍스처는 주름을 순간적으로 감추고 매끈한 눈가 피부를 완성시킨다. 25ml 2만원 (주름개선/미백 2중 기능성)
 적동과 핑크 컬러 가죽 소재의 핸드 크래프트 원형 트레이는 메누하.



피로해진 눈가 피부의 컨디션을 되찾다. 진설아이에센스

보다 섬세한 눈가 관리를 원한다면 진설아이에센스가 최고의 안티에이징 동반자다.
 고농축 적층 성분은 물론 골든아이케어마사저가 눈가 부기와 칙칙함까지 관리해준다. 세심한 눈가 피부를 위해 특별히 고안한 순금 마사저는 3가지 부위에 사용이 가능하고 눈가 혈행 케어에 도움을 줘 지친 피부의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생기를 더한다.
 24시간 유지되는 보습력은 물론, 약 39도 이상의 열풍 조건에서도 강력한 보습력을 선사하여 더워지는 여름철에 사용하기 적합한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아이에센스다. 25ml 2만원 (주름개선/미백 2중 기능성)
 껌질이 멋스러운 나무 오브제와 원목 기둥 받침 검은 접시는 모두 아델



여름의 묘약, 국수

차가운 국물로 몸의 열기를 식히고, 풍성한 기닥으로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는 국수는 여름을 이기는 지혜의 음식이다.
더불어 기력을 채워주는 영양 재료까지 더하면 약이나 다름없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요리&스타일링 김보선(로쏘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전윤정



왼쪽 페이지 다양한 컬러의 불투명한 유리 그릇과 접시는 모두 오유글라스.
오른쪽 페이지 맑은 물방울 같은 유리 접시는 앙유원 작가.

원기를 채우는 오리고기 오이국수



재료

오리 가슴살 1/2개, 오이 1개, 적양파 1/4개, 무순 적당량, 물 6컵, 된장 1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들깨 소스) 오리 가슴살 삶은 물 4큰술, 들깨 6큰술, 간장·설탕 3큰술씩, 식초 1작은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냄비에 물과 된장, 다진 마늘을 넣고 끓인 후 껍질을 벗긴 오리 가슴살을 넣어 삶는다. 푹 익힌 뒤 건져, 한 김 식으면 손으로 잘게 찢는다. 2 오이는 가시를 제거한 뒤 얇게 채 썰어 오이면을 만들고 적양파도 얇게 채 썬다. 3 믹서에 분량의 들깨 소스 재료를 넣고 곱게 간다. 4 그릇에 찢어놓은 오리고기와 오이면, 무순을 얹고 ③의 들깨 소스를 곁들인다.

양지와 해산물을 가득 채운
국수 신선로



재료

양지 100g, 대파 1대(5cm 길이), 마늘 3톨, 파프리카 1/4개, 죽순 20g, 새우 3마리, 관자 1개, 미나리 20g, 소면 120g, 포도씨유·밀가루·달걀물 약간씩
(육수) 양지 삶은 국물 3컵, 동치미 국물 1/4컵, 국간장 1큰술, 식초 적당량

만드는 법

1 냄비에 양지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양지, 대파, 마늘을 넣어 끓인다. 팔팔 끓으면 중약불로 줄여 멍근히 익힌 뒤 고기를 건져 얇게 썬다. 2 파프리카는 굵게 채 썰고, 죽순은 모양을 살려 얇게 썬 뒤 소금을 넣은 물에 살짝 데친다. 3 새우는 내장을 제거한 뒤 끓는 물에 데쳐 머리와 껍질, 꼬리를 손질한 다음, 반으로 가른다. 관자도 데친 뒤 한 김 식으면 얇게 썬다. 4 미나리는 7cm 길이로 잘라서 꼬치에 꽂아 밀가루를 가볍게 묻힌 뒤 달걀물에 적서 포도씨유를 두른 팬에서 노릇하게 지진 다음 다른 재료들과 비슷한 크기로 썬다. 5 볼에 차게 식힌 양지 삶은 물과 동치미 국물, 간장, 식초를 넣어 육수를 만든다. 6 소면은 끓는 물에 삶아서 찬물에 헹구고 사리를 지은 다음 그릇에 담고 ①, ②, ③, ④를 차례대로 담은 뒤 국물을 붓는다.

왼쪽 페이지 둥근 자개

트레이와 노란색 불은 모두
일무꺄러리, 초록색 컬러로
테두리를 장식한 낮은 유리
볼과 유리 오브제는 모두
양유완 작가

오른쪽 페이지 초록색 유리
볼과 푸른색 유리 오브제는
모두 양유완 작가, 녹는 얼음을
유리로 형상화한 유리 그릇은
이달라의 올티마틀레



시원한 바다가 가득
문어 해초 냉면

재료

꼬시래기 120g, 자숙 문어 90g, 달걀 1개, 오이 1/4개, 소금 약간
(육수) 멸치 육수 3컵, 간장 3큰술, 식초 2큰술, 설탕 1큰술, 매실청 1작은술

만드는 법

1 꼬시래기는 물에 30분 이상 담가 염분을 뺀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쥘다. 2 자숙 문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편을 썬다. 3 달걀은 지단을 부친 뒤 채 썬다. 4 오이는 반으로 갈라 어슷하게 썬 뒤 소금을 약간 뿌려 20분 정도 지나면 맑은 물에 헹구고 손으로 물기를 꼭 쥘다. 5 볼에 멸치 육수, 간장, 식초, 설탕, 매실청을 넣고 골고루 섞어 새콤한 국물을 만든 뒤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힌다. 6 그릇에 꼬시래기와 자숙 문어, 오이, 달걀지단을 담고 ⑤의 국물을 붓는다.

진하고 고소한 여름의 맛
주키니 호박 잿국수

재료

주키니 호박 1/2개, 전복 1개, 간밤·말린 대추·표고버섯 1개씩, 광어회 40g, 간장·참기름 1/2작은술씩 (국물) 잿 2/3컵, 전복 데친 국물 3컵, 간장·식초 2큰술씩, 설탕 1큰술, 연겨자 1/2큰술

만드는 법

1 주키니 호박은 채칼을 이용해 면처럼 얇게 썬다. 2 전복은 끓는 물에 데친 뒤 한 김 식으면 얇게 썬다. 3 간밤은 얇게 썰고, 말린 대추는 물에 30분 정도 담가 불린 뒤 씨를 빼고 채 썬다. 4 표고버섯은 채 썰고 간장, 참기름에 버무리 뒤 달군 팬에서 볶는다. 5 달군 팬에 잿을 넣고 기름기가 살짝 돌 때까지 볶는다. 6 믹서에 잿과 전복 데친 국물, 간장, 식초, 설탕, 연겨자를 넣어 곱게 간 뒤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힌다. 7 그릇에 주키니면을 담고 전복, 밤, 대추, 광어회를 얹은 뒤 ⑥의 국물을 붓는다.



왼쪽 페이지 유리 저그와 컵, 미니 유리 굽접시 비정형의 유리 불은 모두 양유완 작가.
오른쪽 페이지 투명한 유리 불은 모두 양유완 작가, 파란색과 노란색 불투명한 접시는 오유글라스

달콤한 미소가 번지는
망고소스 참외 국수



재료

참외 2/3개, 망고 1/4개, 연유 1작은술, 앵두 적당량

만드는 법

1 참외는 씨를 발라내고 얇게 채 썰어 면을 뽑는다. 2 믹서에 망고를 넣고 곱게 간 뒤 연유를 섞는다. 망고가 많이 달면 연유를 빼고 레몬즙을 약간 넣어 산미를 더해도 좋다. 3 그릇에 참외로 뽑은 면을 담고 망고 소스를 적당량 얹은 뒤 앵두로 장식한다.

동화 속 마을을 걷다

Rothenburg & Shirakawago

로텐부르크 & 시라카와고

어릴 때 읽었던 그림책 속 마을은 왜 그리 알록달록했을까? 뽀족뽀족 멋진 지붕을 가진 고풍스러운
성이나 깊은 숲속 요정들이 살 법한 마을을 실제로 여행하는 일은,
오랜 시간 상상으로 구축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기묘한 경험이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셔터스톡





'중세의 보석'이라는 별명처럼, 로텐부르크는 중세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다. 낭만이 가득한 거리는 역사가 얽힌 에피소드를 품고 여행자를 유혹한다.



중세의 보석, 독일 로텐부르크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로텐부르크는 슈타우펜 왕조 때 지은 요새를 중심으로 발전해, 아직까지 중세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도시다. 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니, 1,0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진다.

제2차 세계대전을 지나는 동안 도시의 40퍼센트가 불타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완벽하게 복원되어 옛 모습을 지키고 있다. 독일인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여행지 설문조사에서 자주 1, 2위로 꼽히며, '중세의 보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유다.

로텐부르크 가운데 있는 마르크트 광장. 이 광장을 중심으로 시청사와 시의회 연회관, 교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시의회 연회관은 천문시계로 유명하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매시 정각에 종이 울리면 시계 양쪽에 있는 창문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인형이 와인을 들이킨다. 이는 30년 전쟁 중 도시가 위협에 빠진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시 로텐부르크의 시장인 '누슈'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했던 에피소드를 재현한 것이라고.

광장에서 제일 높고 뾰족한 시청사에 오르면 로텐부르크의 전경이 한

Rothenburg, Germany – Jewel of the Medieval Times

Located in Bayern in the southeast part of Germany, Rothenburg was developed around the fort built during the Staufen Dynasty, and it still maintains the views of the medieval times. People began to settle there in the 9th Century; therefore, its history extends far beyond 1,000 years. Although 40% of the city was burned down during World War II, the historical views have been perfectly restored with ceaseless efforts. For this reason, it is often voted the most or the second most sought-after travel destination among the Germans, and it is commonly known as the 'jewel of the medieval times'.

The Market Place is located in the heart of Rothenburg, while the City Hall, the City Council's Banquet Hall, and a church are positioned around the site. The City Council's Banquet Hall is particularly known for its astronomical clock. When the bell rings every hour from 11 AM to 3 PM and from 8 PM to 10 PM, the windows open on both sides of the clock and the dolls inside drink wine. The dolls are re-enacting the episode in which Mayor Nusch of Rothenburg





일본의 원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시라카와고 마을. 현지인이 살고 있는 일본 전통 가옥에서 옛 삶의 방식을 직접 체험해볼 수도 있다.

눈에 들어온다. 한나절이면 도시의 모든 곳을 둘러볼 수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동화책에서 본 중세 배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붉은 박공지붕을 머리에 인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걸어도 걸어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어디든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로 잘 관리된 마을 곳곳엔 고운 색깔의 꽃들로 꾸며졌다. 동화 속 이야기가를 해 피엔딩으로 끝나듯이, 이곳은 행복한 이들의 빛나는 삶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다.

요정이 살 법한 합장의 마을, 시라카와고

일본 기후현의 시라카와고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풍광을 품고 있다. 1500명 정도 되는 작은 인구에 총면적의 96퍼센트가 숲으로 뒤덮인 산골 마을. 이곳은 먼 과거일까? 아니면 신화와 환상이 뒤섞인 또 다른 시공간일까? 먼저 독특한 외양의 가옥들이 눈에 들어온다. '갓쇼즈쿠리(合掌造)'라는 이 일본 전통의 민가 건축 양식은 책을 펼쳐서 엮어놓은 듯한 초가 지붕이 특징이다. '갓쇼'는 합장이라는 뜻으로, 그러고 보니 기도하는

used his wits to save the city from danger during the Thirty Years' War. You can fully appreciate the view of Rothenburg at a glance from the top of the highest and sharpest City Hall. It is a small village that only takes one day to have a look around, but it has an infinite chain of tales from the medieval times. There is a long line of antique buildings with red gable roofs. As fairy tales always have happy endings, happy lives would continue ever after in this place.

Shirakawago - The Fairy-Like Village of Gassho

Shirakawago of Gifu Prefecture, Japan boasts of a view that cannot be found elsewhere. This is a mountainous village with only an estimate of 1,500 people in population and an area that is 96% covered in forest. First, the unique-looking houses will hold your gaze. The traditional architectural style called 'Gassho-zukuri' is characterized by the hay roofing that resembles an upside-down open book. 'Gassho' refers to the image of praying hands since the roofing also resembles a pair of hands.

두 손을 닦기도 했다. 시라카와고는 겨울의 엄청난 폭설을 대비해 급한 경사로 지붕을 얹어야 했는데, 그것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삼각형의 가파른 지붕은 짙을 차곡차곡 두껍게 쌓아 만들어 가벼우면서도 따뜻하며, 30년 주기로 교체한다. 기본적으로 3층으로 구성된 이 건축 양식에서 1층은 생활 공간으로, 2층은 작업 공간, 3층은 저장 공간으로 사용되는데 관광객을 위해 개방한 가옥에서 그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다. 시라카와고의 모든 계절에는 일본의 원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봄은 모내기, 여름은 신록, 가을은 단풍, 겨울은 설경으로 특색 있는 풍경을 만든다. 게다가 주민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본 전통 가옥에서 생활하며 옛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시라카와고는 갓쇼즈쿠리 마을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그러한 이유로 마을 전체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마을의 형태 보존을 위해 숙박시설 등을 건설할 수 없고, 주차도 제한되기 때문에 시라카와고는 그야말로 아날로그, 자연 그대로의 세상이다. 푸르른 숲으로 둘러싸인, 장난감 모양의 집들이 웅기종기 들어앉은 이 마을에서는 문득 요정을 만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S

Shirakawago required sloped roofing due to the heavy winter snowfall, and it has become the distinctive tradition of the village. The sloped triangular roofing is formed by piling up a thick layers of hay, so it stays warm even though it is made of light material. It needs to be replaced every 30 years. The houses essentially have three floors, with a living area on the first floor, a working studio on the second floor, and a storage space on the third floor. You can tour the interior of the house through a model house that is open to the public. Most individuals from the town live in an old-fashioned way in traditional Japanese houses. Shirakawago is Gassho-zukuri's largest village, which is why the entire village was registered as part of the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in 1995. Shirakawago currently remains a natural village as it does not permit lodging areas or parking lots in order to preserve its traditional structure. It would not be odd to find a fairy in this village surrounded by the green forest and toy-shaped houses. The praying roofs and idealistic beauty will definitely stimulate your imagination.

여름의 맑은 하루, 빛나는 지혜

여름에는 피부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을 길러주는 설화수의 지혜가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더위와 자외선, 미세먼지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생기 넘치는 맑은 피부로 가꿔주는 설화수의 안티폴루션 제품과 함께하는 여름은 결코 두렵지 않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상백크림 Snowise Brightening UV Protector SPF50+/PA++++

자외선과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촉촉함과 광채까지 선사하는 안티폴루션 미백 선크림이다.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술인 'Block Brightening'을 적용하고 피부 표면을 코팅하는 기술이 더해져 미세먼지가 피부에 붙지 않게 차단한다. 자외선과 미세먼지로 인해 줄어든 기미 제어 인자를 활성화해 기미와 잡티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고 칙칙해진 피부를 환하게 관리한다. 자연스럽게 맑은 피부로 표현하는 'No.1 소프트 글로우'와 화사한 톤업과 잡티 케어를 한번에 해결하는 'No.2 소프트 피치' 두 가지 컬러로 만날 수 있다. **How to use** 아침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을 덜어 피부 결을 따라 부드럽게 바른다.

40ml 7만5000원

순행클렌징폼 Gentle Cleansing Foam

수분을 가득 머금은 클렌징 포뮬러 '순행청은수™'가 피부 노폐물을 없애고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해준다. 피부를 끈고 정결하게 가꾸는 데 사용되는 상엽과 산약 추출물이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해 세안 후 맑아지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세안 시 손바닥에 2회 정도 펴핑해 물과 함께 충분히 거품을 낸다. 얼굴에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클렌징한 후 미온수로 여러 번 헹군다. 저녁에 이중 세안을 할 때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워터 다음에 사용한다. 200ml 3만7000원, 400ml 6만2000원(대용량은 7월 출시)

순행클렌징오일 Gentle Cleansing Oil

산뜻한 제형의 오일이 메이크업과 피부 노폐물을 빠르게 없애주고 '순행청은수™'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세안 후 피부가 촉촉하게 마무리된다. 동백오일, 살구씨 오일, 매실나무씨 추출물 등으로 구성된 연성함방오일컴플렉스는 탄력 있는 모공으로 관리해 깔끔한 세안과 피부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다. **How to use** 물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손바닥에 2회 정도 펴핑해 이마, 코, 볼의 순서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바른다.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이 녹아 나오면 미온수로 여러 번 헹군다. 200ml 4만2000원, 400ml 7만원(대용량은 7월 출시)

일상의 나른한 움직임을 표현한 아크릴 소재 식물꽃이는 셀위댄스.

자정토닝팩 Snowise Brightening Exfoliating Mask

백상 파우더가 묵은 각질과 모공 속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스크럽과 마스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인사위 워시오프 마스크. 꿀과 백상 파우더의 조합으로 피부 표면의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꿔준다. 생기를 잃고 칙칙해지기 쉬운 여름에 맑은 피부로 관리할 수 있다. 실리콘 브러시가 제형이 뭉치지 않고 얇게 펴 바를 수 있게 한다. **How to use** 클렌징 후 또는 세안 시 물기 있는 얼굴에 내용물을 적당량 취해 5분간 도포한 후 1~2분간 마사지하고 미온수로 씻어낸다. 80ml 6만5000원

일상의 나른한 움직임을 표현한 백색 아크릴 소재 식물꽃이는 셀위댄스.

윤 조 에센스미스트
First Care Activating Serum Mist

에어컨 바람 때문에 건조해진 피부에는 윤조에센스미스트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피부의 힘을 키울 수 있다. 자음단™을 담은 오일 워터 에센스가 미세하게 분사되어 더위에 지친 피부의 균형을 찾아주고, 농축감 있는 수분이 윤빛 피부를 선사한다.

How to use 오일 워터 에센스가 잘 섞이도록 충분히 흔든 뒤 얼굴에서 10~15cm 떨어진 곳에서 가볍게 분사한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 흡수시킨다. 110ml 7만원, 50ml 4만원

윤 조 마스크
First Care Activating Mask

한껏 달아오른 피부의 열기를 식히고 건조해진 피부를 집중 관리할 때 윤조마스크가 필요하다. 윤조에센스 3분의 1병의 유효 성분이 한 장의 마스크에 담겨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하고 자음단™ 성분이 피부 균형을 맞춰 최적의 피부 결을 선사한다.

How to use 주 1~2회, 세안 후 첫 단계에서 마스크를 얼굴에 붙여 10~20분간 흡수시킨다. 마스크를 떼어낸 후 남아있는

내용물이 피부에 스며들도록 가볍게 두드린다. 23g X 5매 6만원



물이 번진 모양을 블루톤 레진으로 표현한 코스터는 베이크드알래스카.

여름 안티폴루션 솔루션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뜨거운 열기와 강렬한 자외선은 피부를 달구고, 미세먼지는 계절이 따로 없이 피부를 자극하며 건강을 위협한다. 막아야 하는 건 제대로 막고, 닦아내야 하는 건 깔끔하게 제거하며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영양을 공급하는 세심한 관리가 그 어느 계절보다 필요하다.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어 피부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면 탄력이 저하하고, 모세혈관 확장과 피부 장벽 약화 등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설화수를 대표하는 자외선 차단제인 상백크림으로 강한 자외선을 막고 손상을 예방하는 게 바람직한 여름 안티폴루션의 시작이다. 설화수만의 피부 표면 코팅 제형 기술이 적용되어 미세먼지 등의 외부 유해물질이 피부에 흡착되지 않도록 하고, 멜라닌의 색소 침착을 방지해 기미와 잡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 맑고 깨끗한 피부로 가꿔준다. 순행클렌징오일, 순행클렌징폼과 함께하는 꼼꼼한 세안은 여름 안티폴루션의 핵심이다. 산뜻한 오일 제형과 풍부한 거품은 피부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피부 수분력을 강화해주는 순행칭은수™가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해준다. 모공 속 미세먼지와 각질은 백삼 파우더가 함유된 자정토닝팩의 도움으로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 샤워하는 동안 사용해 스크럽과 마스크 효과를 편하게 누릴 수 있다. 무더운 날씨로 달아오른 피부의 열기는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미스트를 수시로 뿌려 낮춰주고, 일주일에 1~2회씩 윤조마스크를 사용해 민감해진 피부 균형을 되찾아주면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와 함께 여름을 당당하게 즐길 수 있다. S

Summer Anti-pollution Solution The scorching heat of the sun and its intense UV rays during summer warm up the skin, and the fine dust stimulates the skin and threatens your health throughout the year. You need devoted care to block what needs to be blocked, remove what needs to be removed, and replenish your tired skin with nourishment. When the temperature of the skin surface rises due to the intense UV rays, it loses resilience and you may experience an expansion of the capillary vessels and weakening of the skin barriers. For this reason, the first step to combat the effects of pollution during summer is to block the UV rays and prevent damage with Snowise Brightening UV Protector, Sulwhasoo's signature sunscreen. It applies Sulwhasoo's original skin surface coating technology to keep external aggressors, such as fine dust, off the skin, and prevent melanin pigmentation in order to relieve age spots and blemishes, and leave your skin clean and clear. The key to a thorough anti-pollution care is to cleanse with Gentle Cleansing Oil and Gentle Cleansing Foam. Hydra Capture Complex™ is formulated with refreshing oil, and the rich lather cleanses the skin impurities and fortifies its moisturizing capacity. You can also try Snowise Brightening Exfoliating Mask containing White Ginseng Powder to exfoliate fine dust and dead skin cells, and enjoy the scrub and mask while taking a shower. Cool off your heated skin with First Care Activating Serum Mist containing JAUM Balancing Complex™ and use First Care Activating Mask 1-2 times a week to restore the balance of your sensitive skin. This way, you can stay confident with your healthy and radiant skin this summer.



오감을 일깨우는 향기로운 여름 Summer Fragrance to Awaken the Five Senses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설화수 브랜드의 세계가 한눈에 들어오는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헤리티지룸에서 선조의 지혜를 이어 완성한 5대향을 체험할 수 있다. 여기에 싱그럽고 청량한 다과까지 즐기면 그야말로 완전한 여름날의 호사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아시아 뷰티의 정수를 담은 시그니처 공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설화수만의 아름다운 향기로 마음을 가꾸며 뜨거운 열기를 식혀보는 것은 어떨까?

전통 향제법인 '향서齋書'를 현대의 감각으로 되살려,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설화수의 대표 다섯 가지 향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1층에 마련되었다. 먼저 향기를 시각화한 표현부터 단아한 미감으로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나무, 꽃, 빛, 열매, 뿌리 등에서 영감을 얻은 5대향의 모티브를 옛 여인의 수틀에 감각적으로 담아냈다. 한국 전통의 화려한 비원을 재현한 자수 작품 안에서 신비로운 향기에 모여드는 나비들의 아름다운 색채가 꽃과 함께 어우러져, 보는 이로 하여금 편향된 감정 상태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한다.

또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나타내는 윤조지향을 기준으로 분노나 기쁨처럼 기복이 큰 감정을 다스리는 진정·정화 조합의 청아지향과 백화지향, 슬픔과 우울과 같이 침체되고 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생기·활력 조합의 흥서지향과 흑여지향을 체험해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여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무더위를 식혀줄 싱그러운 힐링 타임을 준비했다. 이를하여 '그린 모먼트 이벤트'로 7월 31일까지 플래그십 스토어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챙겨줄 아이스 티 컬렉션과 함께 달콤한 다과를 제공한다.

음료와 다과 제공은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운영되어, 현재 전시 중인 오방색 크리스탈 조명의 화려한 생동감을 더욱 쾌적하게 느껴볼 수 있는 기회다. 순수하고 섞임 없는 다섯 가지 색이 황금빛 브라스 구조물 사이로 빛나는 모습은 여름날 더할 나위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S

How about cooling the summer heat with Sulwhasoo's lovely fragrances at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the signature space conveying the essence of Asian beauty?

HYANG-SEO, the traditional perfumery method, has been restored with new modifications to produce the five signature fragrances of Sulwhasoo that will help refine and beautify the body and mind. Sulwhasoo Flagship Store offers a space on the 1st floor for guests to sensibly experience the five signature fragrances of Sulwhasoo.

It offers the pleasure of seeing the aesthetic appeal of the fragrances through visualization. The inspirations for the five fragrances (trees, flowers, light, fruit, and roots) are beautifully captured in women's embroidery frames. The embroidery work reflects Korea's colorful Biwon Garden, and integrates the beautiful hues of the butterflies that are attracted to the scents of the flowers to harmonize and balance the emotional states of the viewers.

Based on First Peace that represents the balance of the body and mind, you can experience Forest Morning and Gentle Blossom to soothe and purify the ups and downs of powerful emotions, such as anger and joy, or experience Capturing Moment and Inner Fullness to revitalize and energize unhappy and static emotions, such as sadness and depression. Furthermore, Sulwhasoo Flagship Store has prepared a new healing time to cool off the heat this summer. 'Green Moment Event' offers the iced tea collection of Sulwhasoo brewed for health and beauty, along with sweet refreshments for every visitor at the Flagship Store until July 31.



뜨거운 날씨에 지친 몸과 마음을 설화수만의 향기로 다독일 수 있는 다채로운 여름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즐거움을 확인해보자.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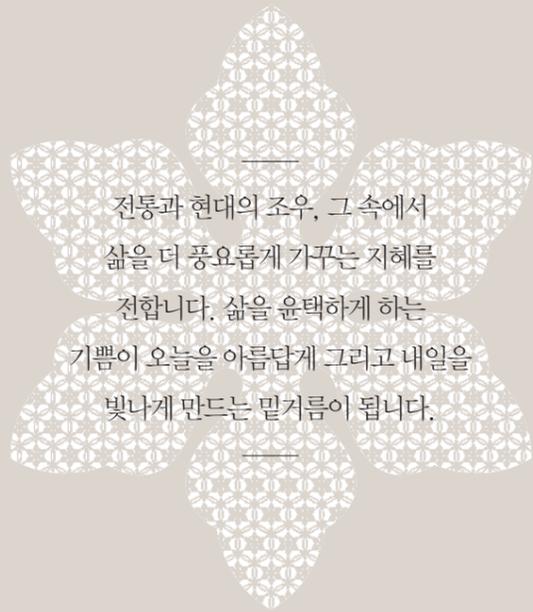
LIMITED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의류관



생활공간에 어우러지는 완조 덮개 스톨은 유선옥 완조장 전수교육조교 X 조영선 금속공예가 by 한국문화재단 인천공향 한국전통문화센터.
백자를 다양한 컬러와 질감으로 물레 성형하여 만든 리빙 오브제는 모두 엄기성 작가 by 제로룸 152. 벽 페인트 컬러는 'DE5914'로 던에드워드 논현점
바닥 페인트 컬러는 'DEC774'로 던에드워드 논현점

잠이 소록소록 꿈이 알록달록

자 수 이 불 커버 만들기

해를 품은 이불 냄새를 맡아본 적 있는지? 깨끗하게 뺀 이불 출청을 벌에 바짝 말리면, 기분 좋게 바스락거리면서
즐음이 솔솔 오는 햇볕 냄새가 난다. 새 이불이 생긴 것만 같은 그날 밤엔, 늘 좋은 꿈을 꾸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도움 주신 곳 규방도감

옛날엔 어떤 이불을 덮었을까?

열대야로 잠을 이루기 쉽지 않은 요즘, 수면의 질이 곧 생활의 질임을 새삼 깨닫는다. 편안한 잠자리에는 좋은 이부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부자리는 잠을 잘 때 깔고 덮는 요와 이불을 칭하는데, 이부자리와 베개를 합해 '금침衾枕'이라고 한다.

우리가 언제부터 요와 이불을 사용했는지 명백하게 밝힐 자료는 많지 않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침의를 마르는 법은 걸을 붉은색과 황색으로 하고 안을 흰색 모시로 하는데 안은 겉보다 네 번이 각각 한 자 남짓 되게 크다.”는 이부자리를 꾸미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있다. 한편 조선시대 궁중 문서로 남은 금침의 구입 기록에도 이불에 관한 내용이 있다.

백제 고분에서 발견한 베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베개, 임진왜란 때 옥사한 김덕령 장군의 묘에서 나온 이불을 보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유물은 광주 충장사에 보관되

어 있는 이불인데, 이것이 김덕령의 묘에서 나온 부장품이다. 즉 이부자리는 큰 변화 없이 오늘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정성과 지혜 담긴 이부자리

이부자리는 계절에 따라 그 종류가 크게 달라진다. 봄과 가을에 쓰는 것과 여름, 겨울에 쓰는 것이 각각 달라 따로 만들었다. 홑이불과 겹이불은 여름철에, 솜을 얇게 둔 이불과 그것을 누빈 이불은 가을이나 봄, 두꺼운 솜이불은 겨울철에 주로 덮었다.

이불은 형태에 따라서 솜을 넣어 두껍게 만든 후포단厚布團과 얇은 박포단薄布團, 자수를 넣은 자포단刺布團, 겹겹이 쌓아 만든 겹포단裕布團과 홑으로 된 단포단單布團, 가볍게 덮는 경포단輕布團, 섬세하게 누벼서 만든 누비이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누비이불은 또 누비는 방법에 따라 오목누비, 중누비, 세누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불은 걸감으로 만드는 이불등이 중요시됐다. 이불등은 바탕천과 이



준비물 광목 이불 커버(민무늬, 워싱 처리된 것), 자수 실, 바늘, 가위, 연필, 다듬이 방망이

만드는 방법

- 1 워싱이 된 광목 이불 커버를 잘 접어 다듬이질한다. 커버는 가지고 있는 이불의 사이즈에 맞게 무명 원단을 재단, 제작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다. 다듬이질은 주름을 펴주고 천을 부드럽게 만든다.
- 2 다듬이질한 광목 이불 커버 위에 자수를 넣을 꽃 모양 디자인을 도안한다.
- 3 완성한 도안을 따라 자수를 넣는다. 담백한 광목 위에 포인트가 되는 화사한 색감이 이불에 잘 어울린다.
- 4 자수를 모두 마무리하면 다리미질을 해서 다시 주름을 펴주고, 자수가 잘 지리 잡게 한다.
- 5 기존의 이불이나 이불솜 위에 커버를 씌워 완성한다.

규방도감 침구, 방석, 옷, 보자기 등 바느질과 자수, 천연염색을 접목시킨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날 수 있는 우영미 작가의 공방. 쇼핑뿐 아니라 자수나 이불 제작을 손수 체험해볼 수 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5가길 44-5 문의 02-732-6609

불깃, 동정으로 이루어진다.

전통 이불에는 저고리처럼 거의 깃과 동정을 달았다. 동정이 있는 부분이 위를 가리키며, 이불깃은 20~30센티미터 정도의 이불등 색과 다른 색의 천을 연결시킨 것이다. 이불깃의 색깔은 이불 겉감의 색과 상관없이 보통 붉은색 계통을 썼다. 이불 동정은 얼굴이나 목이 닿는 이불깃의 맨 윗부분에 달았는데, 동정만 떼어내 자주 세탁하여 더 쾌적하게 덮을 수 있었다.

대개의 가정에서는 이불 겉감을 마련하는 데 큰 관심을 두었다고 한다. 민가에서 겉감은 주로 무명, 광목, 명주, 삼팔주, 산동주 등을 썼고 안감은 겉감에 어울리게 선택했는데 주로 질기고 감촉이 좋은 무명 종류로 했다. 부유한 계층에서는 고급스러운 비단을 선호했는데 겨울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단류, 여름에는 향라와 같은 얇은 비단으로 이불을 지었다. 조선시대에 이부자리 속에 넣는 재료는 주로 목화솜이었다. 또한 누에고치의 풀솜과 여름에 피는 창포꽃을 잘 말려 솜같이 만들어 넣기도 했으며, 목화가 보급되기 전에는 짐승의 가죽과 털도 이용했다고 한다. 지금처럼 날씨가 무더운 여름에는 간단히 훌이불만 덮었고요 대신 대나 싸리를 쪼개 촘촘히 짠 자리를 깔개로 썼다. 특히 왕 골겹질을 이용한 돗자리는 꽃무늬나 기하무늬를 넣어 화려하게 꾸며 여름철 침구로 사랑받았다.

소탈한 광목 위에 피어난 자수 꽃송이

이부자리는 예나 지금이나 살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항목이며,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 이불을 마련해주는 것 역시 지금까지 이어오는 풍습이다. 과거에는 이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서 직접 만들었지만, 바쁜 현대의 일상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배움의 기쁨'에서는 기존에 있는 이불 위에 달 수 있는 한 자수 이불 커버를 만들어보았다. 천연 자연의 소탈한 질감을 간직한 무명(광목) 이불은 빨수록 오히려 하얗게 되기에 항상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공기가 잘 통하고 땀 흡수도 잘되어 긴 시간 몸에 닿는 소재로서는 최적이다.

하지만 무명을 이불로 사용하려면 원단을 워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규방도감의 우영미 대표는 직접 원단을 가마솥에 빨고 말리는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해, 느슨한 조직을 단단하게 한다. 이 워싱을 거치면서 더 탄탄해지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다듬이질을 하면 정갈하게 주름이 퍼지면서 천 표면이 보송보송하게 일어나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아무 색도 들지 않은, 새하얀 캔버스 같은 무명 위로 색색의 꽃이 내려앉는다.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완성된 이 꽃밭을 덮고 자면 어떤 꿈이 찾아올까?S

물 한 잔도 허투루 두지 않고 Serving the Proper Way – Even a Glass of Water

소담한 한 상을 차려낸 통영반이 믿음직하다면, 수정과 한 그릇을 받쳐 새초롬히 나온 일주반은 사랑스럽다.
물 한 그릇도 제대로 대접하려는 그 마음이 섬세한 맵시 구석구석 어려 있으니.

글 민소연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이종근

소반은 음식을 먹을 때 그릇을 받쳐놓는 작은 상을 이른다. 우리 전통의 좌식 문화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주방 가구라 할 수 있다. 주방에서 안채나 사랑채로 음식을 옮기는 쟁반, 방 안에서 상(식탁)의 구실을 모두 수행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널리 사용했던 터라 지방마다, 쓰임새에 따라 그 생김새가 다양하고 특색 있다.

소반은 크게 그릇 등을 놓는 평평한 상부의 널, 받면(盤面)과 그 널을 받치는 다리로 이루어진다. 널 아래에는 대개 여러 조각이나 문양으로 장식한 난간이 있고, 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중대(中帶)와 족대(足臺)가 있다. 주로 여성이 운반해야 했기에 은행나무나 느티나무처럼 가볍고 튼튼한 목재가 사용되었다.

소반은 받면의 형태에 따라 8각, 12각, 장방형, 4방형, 원형, 반월(半月)형, 연엽(蓮葉)형, 화(花)형 등으로 분류하고, 다리는 모양에 따라 개다리 모양을 한 구족반(狗足盤), 범의 발을 닮은 호족반(虎足盤), 대나무 마디처럼 조각한 죽절반(竹節盤) 등으로 구분한다. 일주반은 다리가 하나인 소반을 가리키는데 ‘단각반(單脚盤)’이라고도 한다. 하나의 기둥이 받면의 중심을 받치지만 발 쪽으로 네 개의 받침대가 있어 안정감을 준다. 주로 부유한 계층이 사용하여 자개를 박는 등 사치스러운 기법으로 화려하게 꾸몄는데, 실제로 버티는 힘이 강하지는 못하여 주로 과일이나 탕약, 물그릇 등을 하나씩 올려두는 용도로 썼다.

19세기 조선 물건으로 추정하는 이 일주반은 구름과 당초무늬가 연속한 운당초형 장식의 받침과 꼬아 올린 듯한 형태의 기둥이 12각의 받면을 지탱하고 있다. 상판에 비해 흰칠한 기둥의 높이가 경쾌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한편 전통 일주반에 견주어본 하지훈 작가의 작품은 전통이 가진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재현하면서 모던한 감각을 가미했다. 좌식 문화에 맞춰져 있던 높이를 올려 현재에 알맞은 테이블이 되었다. S

Soban (a platter) is a small tray and table that holds the dishes. It is an indispensable kitchen tool for the traditional seated culture of Korea. It is used as a tray for serving food from the kitchen and as a table in the room. It was widely used by different social classes, and it comes in various unique shapes by region and by purpose.

Soban comprises mainly of a flat board to hold the dishes (Banmyeon) and legs to support the board. The sides of the board have rails decorated with various pieces or patterns, and the legs are supported with Jungdae and Jokdae. Since Soban was mostly carried by women, it was made of light and sturdy wood such as ginkgo trees or elm-like trees.

Furthermore, Soban was classified into octagonal, 12-sided, rectangular, 4-sided, round, semi-circular, leafed, and floral shapes according to the shape of Banmyeon. The legs can be Gujukban in the shape of dog legs, Hojokban in the shape of tiger paws, and Juljeolban carved into bamboo nodes. Iljuban refers to Soban with one leg, and it is also called ‘Dangakban’. One column supports the center of Banmyeon, and there are four supports toward the paws for stability. It was mostly used by wealthy people, so it was extravagantly ornamented with mother-of-pearl or so on. However it had poor stability, so it was mostly used to carry a dish of fruit, a bowl of medicine, or a bowl of water.

This Iljuban is estimated to be from the 19th Century Joseon. There is a constant pattern of clouds and foliage, and a twisted column that supports the 12-sided Banmyeon. The column is rather high, balanced, and sophisticated. The work of Artist Ji Hoon Ha represents the artistic beauty of old tradition with a hint of modern touches. The height was raised in order to convert it into a tea table.



외다리 소반(일주반), 조선시대



일주반, 하지훈 작가



기억 속 아름다움을 재현하기 위해 조은희 대표는 끊임없이 배우고 시도한다. 족두리와 떨잠, 공단 비녀는 모두 조은희 작가 by 량랑. 카키색 사각 소반 트레이 by 일무갤러리.

꿈결처럼 반짝이던 족두리의 행방

량랑 조은희 대표

별처럼 반짝이는 것은 모두, 시대를 초월해 매혹 그 자체였을 터. 량랑은 한국 전통의 장신구에서 영감을 받아 그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주얼리 브랜드다. 량랑의 조은희 대표를 만나보았다.

글 민소연 사진 오희원

량랑은 한국 전통의 장신구에서 영감을 받아 그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주얼리 브랜드다. 그래서 량랑이 내놓은 다양한 액세서리는 ‘전통 장신구’에 대해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나 정형화된 이미지를 묘하게 빗겨 간다.

그 옛날 지체 높은 여인의 삼단 같은 머리칼 위에 나비처럼 앉았던 떨잠은, 그 떨리는 빛남을 그대로 가진 채 브로치로 환생한다. 색동저고리의 화사한 색감은 전통 가락지 매듭으로 견고하게 짜인 팔찌에 재현되고, 조선시대 화폐 상평통보가 목걸이의 펜던트 구실을 근사하게 해낸다. 전통을 섬세하게 보고 느껴 거기에 상상력을 더한 결과물은 새롭고, 더없이 활기차다.

“아버지가 미술에 소질이 있으셨어요. 어린 시절 추억이 많아요. 아주 추운 날 아침엔 아버지가 우리를 일찍부터 깨우셨어요. 온 집 안의 성에 낀 유리창마다 그림을 멋지게 그려놓으시고는 우리더러 보라며 환하게 웃으셨죠. 지도 그 피를 물려받았는지 미술은 늘 잘했어요. 전공을 미술로 하지는 않았지만 늘 창작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고, 지금은 너무나 즐거워요.”

조은희 대표는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무작정 파리로 떠났다. 현실은 기대한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지만, 어느 골목 우연히 들어간 갤러리에서 삶을 바꿀 큰 영감을 얻었다. 동양적인 전통미를 새롭고 자유분방하게 표현한, 이름 모를 작가의 그림이 그때까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골동품에서 보았던

미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특유의 섬세하고 세련된 감각이야말로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큰 자산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 계기에 엄청난 실행력이 더해져, 얼마 후 브랜드 ‘량랑’이 태어났다.

“대여섯 살 때 기억이에요. 한밤중에 눈을 떴는데 장 위에 족두리가 있었어요. 반짝반짝한 스팅글이 잔뜩 달린 게 너무나 예뻐요. 밤에 그걸 쓰고 거울을 보며 놀다가 품에 안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 족두리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죠. 어머니께 여쭙봐도 모른다고 하시고요. 그게 꿈이었는지 이제는 확실하지 않지만, 무척 강렬한 기억이에요. 그 후로 족두리를 좋아했어요. 지방에 다닐 기회가 있을 땐 그곳만의 특색이 있는 족두리를 찾아 구입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관모장 보유자인 박성호 선생님께 족두리 제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놓쳤던 그 반짝임을 찾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 한밤중에 만났던 그 예쁜 족두리는 어디로 간 걸까? 조은희 대표가 애장품으로 소개한, 직접 만든 족두리 안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리고 동시에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움을 창조하고 싶은 그 마음 뒤편에, 사라진 족두리가 오롯이 놓여 있을 터이다. S





흙과 건축의 만남과 확장, 그 가능성

흙(Clay)과 건축(Architecture)의 뗄 수 없는 상호 협조의 관계를 뜻하는 '클레이아크(Clayarch)'. 흙이 가진 끝없는 확장성은 우리 삶을 진화시켰고, 근본적인 재료로서 슬한 위대한 건축을 완성해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박혜숙

미술관,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묻다

국내 유일한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인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 건축도자의 본질을 묻는 기획전을 열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2006년 개관한 이래 '건축도자'라는 생소한 개념을 건축과 도자의 만남으로 풀어내며 대중과 만나왔다.

흙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은 도자라는 장르를 통해 문명을 진보시켰다. 이는 앞으로도 예술적 측면과 재료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할 분야다. 건축 역시 인간 삶의 발전을 돕는 최전선의 기술이자 생활의 터전이다. 또한 오늘의 건축은 다양한 재료의 개발과 기술의 발전으로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예술로 자리 잡았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도자와 건축을 함께 담아내고자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클레이아크를 말하다>전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 그동안 해온 오랜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이다. 여러 예술가가 그 질문에 대

한 답을 함께 고민했고,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도출해낸다.

건축도자의 본질을 묻는 <클레이아크를 말하다>전은 미술관 돔하우스에서 개막했다.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작가 9명의 작품을 선보이며 '클레이아크는 무엇이다'에 대한 답을 구했다. 건축도자의 선구자로 불리는 신상호 작가를 중심으로 강준영, 김희원, 박삼철, 이인숙, 정민지, 정용현, 조영학, 최주연 등의 작가가 참여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의 메인 전시관인 돔하우스는 5,000여 장의 도자 작품(Fired Painting)이 외부를 둥글게 감싸고 있다.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으로서 클레이아크를 소개하는 상징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종이나 캔버스에 그리지 않고 흙을 이용해 만든 도판 위에 그림을 그리고 불에 구워낸 것으로, 건축물에 사용이 용이한 내구성과 내화성을 갖춘 타일의 표면 위에 사선으로 나뉘는 절묘한 색의 분할이 특히 아름답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을 두운 그림으로 옷을 갈아입는 미술관이라고 불리게 한, 이 수제 타일을 제작한 주인공이 2019년 기획전 <클레이아크를 말하다>에 참여하는 신상호 작가다. 이 전시의 서막



<클레이아크를 말하다>전

일시 2019년 4월 27일~9월 1일
장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돔하우스
문의 055-340-7000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의 돔하우스는 5,000여 장의 도자로 감싸인 독특한 형태로, 그 자체가 이곳의 테마인 건축과 도자의 조화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을 연 신상호는 우리나라 건축도자 분야의 척박한 토양에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본 미술관을 잉태시킨 초대 관장이기도 하다. 미술관의 첫걸음을 함께한 신상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클레이아크가 재도약하기 위한 지향점과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고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 그와 함께하는 강준영, 정민지, 정용현, 이인숙, 조영학, 김희원, 최주연, 박삼칠 등 8명의 작가는 고유한 예술 언어와 심미안, 그리고 자기만의 표현 방식으로 클레이아크를 말하고 있다.

예술가가 답하는 클레이아크의 다양한 정의

유사하면서도 서로 완연하게 다른 작품 세계를 일구어나가는 9명의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클레이아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각각각색의 답을 내놓고 있다. 작가 모두는 작품의 형식이나 기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 각각의 작품 안에서 응축된 독창적 예술관을 발현하고 있으며, 작품의 내용 속에 클레이아크를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출품작을 완성했다. 먼저 돔하우스의 중앙홀에서는 시선을 잡아끄는 강렬한 작품을 마주한다. 까만 머리와 붉은 머리의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 마

주었다. 그 사이에는 극도의 긴장이 흐른다. 머리 색 외에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지만, 갈등의 끝은 그래서 더욱 깊어 보인다. 신상호 작가의 <우화> 연작이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일련의 작품은 현대성이 가진 다층적인 모순을 은유한다. 그는 클레이아트를 "클레이아크는 흙과 건축의 만남이다. 그리고 클레이아크는 흙의 확장성을 넓혀가는 미술관이다."라고 정의했다. 이어 1층 갤러리 1에서는 강준영 작가와 정민지 작가의 세계를 마주한다. 강준영 작가는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 무렵> 등을 통해 유년 시절 해외에서 목격했던 동·서양 주거 문화의 차이, 격변하는 우리 사회의 주거 문화 등을 면밀히 살펴 작품으로 담아낸다. 그는 클레이아크를 "규정하기 어려운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정민지 작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자 블록을 만들어 관람객 참여형 작품인 '다이와이(D.I.Y.: Design It Yourself)'를 새롭게 선보인다. 그녀는 클레이아크를 "보고 느낀 만큼 도자의 세계를 넓혀주는 곳"이라고 말한다. 2층 갤러리 2에서는 정용현, 이인숙, 조영학, 김희원, 최주연, 박삼칠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정용현 작가는 실용적인 형상을 띤 도자 작품의 이면에 숨어 있는 개인적 기억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승화하는 데 집중한다. 그는 '멜팅 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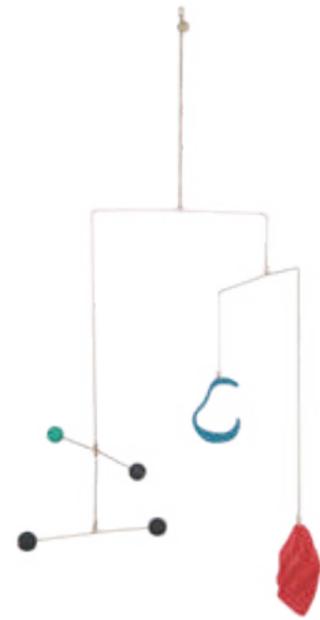
(melting pot)'처럼 각기 다른 것들을 녹여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공간이자 다양함을 담은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클레이아크를 "따로 또는 함께"로 정의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평범한 도자가 가진 단면들의 집합이 의외의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작품 <스플릿>, 순백의 다채로운 도자들이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1kg의 변주>를 출품했다. 이인숙 작가는 도자 공예의 본질인 '쓰임'에 주목했다. 작가와 사용자, 작품과 소유자 간의 상호 소통을 지향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작가는 클레이아크를 소통으로 해석했다. "도자 공예의 본질로 이해될 수 있고, 예술적 가치로서의 소통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조영학 작가는 재료와 기법,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표현을 시도했다. 시리즈 작품 <One&all-그렇게 흘러간다>에서는 복잡한 현대 사회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도자 유닛·알갱이 등을 재료로 사용한 작가는 클레이아크를 "유동적"이라고 말한다. 한편 김희원 작가는 입체적인 건축도자를 활용해 공간을 구성했다. 자연을 모티브로 한 그림 또는 자연 소재의 장식재를 사용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보편적 심리에 집중했다. 작품 <야자나무>는 야자나무의 형태를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제작한 것. 작가는 예술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클레이아크를 "소통의 공간"이라 칭한다.

최주연 작가는 곡선과 따뜻함에 주목했다. 그녀는 자연의 시초라 떠오르는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 오브제나 그릇을 만들고, 작품이 전시 공간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데 집중했다. 최 작가는 클레이아크를 "삶의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삼칠 작가는 인간성 상실과 생명 경시 풍조 등의 문제점을 도자 예술로 풀어보고자 했다. 작가는 흙을 만지는 과정을 거쳐 작품이 탄생하는 도예야말로 자연 친화적인 예술이라고 말한다. 흙을 통해 생명에 대한 자각·반성을 하고 공동체의 삶을 윤곽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는 클레이아크를 "인간과 예술의 소통을 위한 장場"으로 표현했다. '클레이아크'라는 개념을 미처 알지 못했더라도 <클레이아크를 말하다>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 겹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예술가들이 모두 다르게 표현했지만 또 모두가 공통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로 그것. 정의하는 언어와 표현되는 이미지가 가리키고 있는 그 공통된 방향성을 오감으로 체감하고 감동하는 것은, 우리가 미술관에 가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이제 그릇 하나, 도기 오브제 하나를 보아도 그것이 공간, 건축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골똘히 생각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나에게 "클레이아크는 각성"이다.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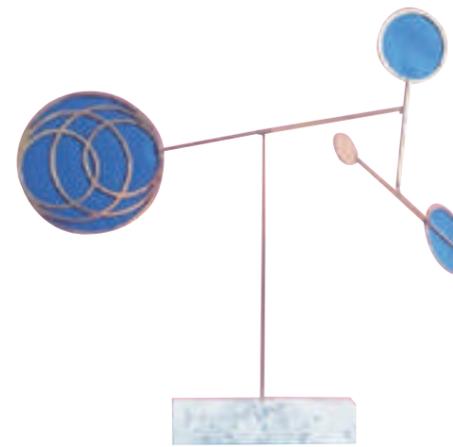
바람이 머무는 풍경

한 줌 바람마저 시원하고 소중한 여름, 작은 바람에도 이내 흔들리며 바람 길을 알려주는 모빌과 풍경은 더위에 지친 마음에 청아한 휴식을 전한다.

에디터 박효성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뷰로 드 플로디아)



생동감 넘치는 오후 3시의 분위기를 다채로운 색감과 조형적인 형태로 표현한 '3pm' 모빌은 던(Dawn).



한지에 푸른 염색을 한 후 금속 소재와 접목한 리드미컬한 스탠드형 모빌 'MOON ON THE GROUND'는 하나두리.



싱그러운 봄을 상징하는 컬러로 식물을 표현한 한지 모빌 '랄랄라'는 오마치.

아기를 위한 장난감 정도로 여겨졌던 모빌이 조각 작품 못지않은 아름다운 인테리어 오브제로 거듭나고 있다. 금속, 종이, 아크릴, 나무 등 다채로운 소재와 조형적인 형태, 감각적인 색상을 정교한 조각으로 빚어 작품의 경지에 이른 것. 섬세하거나 간결하고, 화려하거나 모던한, 다양색의 모빌은 허전한 공간을 채워 풍성한 이야기를 보탠다. 비슷한 모양의 작은 조각들이 이어진 모빌은 미세한 공기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 공간에 리듬감을 선사한다. 스탠드 위 아슬아슬하게 세운 모빌이 미묘하게 움직이며 평행을 유지하는 모습은 마음을 간질이며 이내 평온을 전한다. 쇠로 작은 종 모양을 만든 후 모빌 조각을 단 풍경 모빌은 바람 따라 맑은 소리를 울리며 열기 가득한 마음을 식혀주고 얇은 바람에는 우아하게 춤을 추며, 깊은 바람과는 다정한 대화를 나누듯 하늘거린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멎어 있던 마음이 스르르 풀려버린다. 풍수적으로도 현관에 소리가 나는 금속 소재의 풍경이나 모빌을 두면 나쁜 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모빌은 낭만과 고요와 행운까지 전해주는 '바람의 전령사'가 아닐까. S



직접 그린 일러스트를 아크릴 소재 모빌로 표현한 '톨림의 산책'은 오시영 작가 by 리빈.



에어 플랜트를 담아 공중에 달아 키울 수 있는 플랜트 모빌은 스물명굿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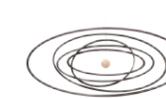
너도밤나무, 소나무, 황동 소재를 조합해 간결한 조형미를 극대화한 모빌 '동-112'은 우들랏.



붉은 꽃이 만발한 정원을 주제로 꽃잎 모양 펜던트를 배치하고, 곡선이 아름답게 움직이는 형태로 디자인한 'red garden'은 유주열센트.



섬유 로프로 만든 다채로운 조각 펜던트와 청아한 소리를 내는 풍경이 결합한 모빌은 엄윤나 작가×곽중범 작가.



간결한 알루미늄 소재와 부드러운 나뭇결이 어우러져 우주 타원 궤도를 표현한 조각 작품 같은 모빌은 플렌스테드 모빌 by 짐블랑.



황동과 옷칠 나무와 금박, 흙 등의 혼합 재료로 자연과 생물들의 모습을 추상적으로 구성한 모빌은 조민지 작가.



다른 크기의 사각형이 모여 큰 사각형 형태를 만들어내는 '롬버스 모빌'은 스물굿명스.



진한 향과 천연 향균 물질이 함유된 편백나무와 아크릴, 황동을 결합하여 시각적 후각적 재미를 더한 탁상형 모빌은 504-18.

작열하는 태양 아래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과 머리카락까지 괴롭힌다. 여름 휴가와 물놀이 등 바깥 활동이 많은 여름, 피약별에 맞서 당당하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한다.

에디터 박효성



자외선과 적외선에 의한 열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홍삼사포닌 성분이 피부 주름 개선을 도와주는 안티에이징 데이크림인 '소선보크림(TPF 40/SPF 30/PA++)'은 선택수.



예로부터 부채는 시원한 바람을 전하고 얼굴을 가려 강한 햇빛을 막는 데 사용했다. 한지와 푸른색 실크로 만든 합죽선은 국가무형문화제 제28호 선자장 김동식 장인 작품. 해빈비서물.



시원하고 가볍게 걸칠 수 있는 로브는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고 멋스럽게 스타일링할 수 있다. BBYB.

세월의 흐름이 노화의 주범이지만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피부는 노화에 가속도가 붙는다. 자외선은 자연 살균 기능과 체내 비타민 D 합성 등 우리 생활과 건강에 꼭 필요하지만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는 물론 눈과 머리카락 등 자외선이 닿는 모든 곳의 젊음과 건강을 앗아간다. 음침하기 짝이 없는 자외선과의 밀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무장이 필요하다. 사계절 모두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야 하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는 여름에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한다. 자외선 A,B를 모두 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SPF 30 이상이 좋다. 로션, 플로이드, 스틱, 쿠션, 스프레이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어 피부 상태와 자외선 노출 상황에 따라 선택해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여름철 강한 자외선은 눈에도 치명적이다. 눈의 각막 세포가 화상을 입으면 시각 세포가 서서히 망가져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바다나 수영장에서는 자외선 반사가 심해 선글라스를 껴 보호해야 한다. 과한 자외선은 모발의 윤기와 탄력을 떨어뜨리고 탈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모자와 양산으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외선의 공습에도 두렵지 않을 자신만의 비밀병기를 준비해 건강하고 빛나는 여름을 누리보자. S



피부에 들러붙지 않는 시원한 리넨 소재로 만든 로브는 일상에서 햇빛을 가려준다. 사비.



수영장, 해변에서 수영복 위에 걸쳐 자외선을 가려주고 몸매를 커버해주는 스웬 가디건. 논로컬.



상큼한 투명한 민트 컬러가 여름 패션을 감각적으로 완성해주고 눈을 보호하는 아세테이트 소재의 선글라스. 마노모스.



챙이 넓어 휴가지에서 강렬한 태양을 막아줄 수 있는 노란색 꽃 지주의 라피아 모자. 오디너리데이.



조선 말기 화가 남계우의 화집도가 우아하게 그려진 양산은 빛과 자외선을 차단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러블리우블리.



네이버 컬러의 빈디나 패턴과 라피아 소재가 시원한 조합을 이룬 모자. 쉽게 접혀 휴대가 간편하다. 신저.



가벼운 소재인 아세테이트 셀룰로이드를 한 개씩 톱질해 수공으로 만든 안경테. 선글라스 클립을 끼워 안경과 선글라스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종필 작가.



전주에서 만들어진 질 좋은 한지와 대나무로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지우산은 예로부터 햇빛을 가리는 데 사용했다. 윤규상 우산장 작품 by KCDF 갤러리숍.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와 피부의 재생력을 강화하는 '정양단' 성분이 더위에 지친 피부를 남성 피부를 보호해주는 '밀렉싱 UV 프로텍터(SPF 50+/PA+++)'는 선택수.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윤조 라인

윤조에센스
● 윤조지향 ● 청아지향 ● 백화지향 ● 홍서지향 ● 흑여지향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설화수의 향으로 감성을 일깨우고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와 홀리스틱 케어를 선사하는 5가지 윤조에센스

60ml | 90,000원대, 100ml | 130,000원대
90ml | 120,000원대

윤조에센스미스트
자음단™이 미세하게 분사되어 생기 있는 윤빛 피부를 선사하는 에센스 미스트

50ml | 40,000원대
110ml | 70,000원대

윤조마스크
자음단™을 미세한 코트 시트에 담아 메이크업은 피부를 보호하고,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와 홀리스틱 케어를 선사하는 집중 밸런싱 케어 마스크

5매 | 60,000원대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히 적시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발리고 밀끔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윤결에센스
피부를 촉촉히 가꾸어 메이크업과 단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피부 걸 정리 에센스

50ml | 125,000원대

설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자신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탄력 강화 크림

75ml | 105,000원대

자음생 라인

자음생수
귀하게 얻은 증삼수™가 농밀한 수분을 공급해 촉촉한 피부 바탕을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 80,000원대

자음생에센스
농축된 인삼 에너지를 담은 미세 캡슐 진세노사피드™가 딱 찬 투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캡슐 에센스

50ml | 200,000원대

자음생유액
귀하게 얻은 증삼수™가 메이크업에 탄력과 영양을 공급하는 안티에이징 에일런

125ml | 90,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힘 있고 매끈한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홍삼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0ml | 180,000원대

자음생페이셜오일
귀한 인삼 증삼유가 함유된 오일이 피부에 영양 윤기 장벽 케어를 선사하는 페이스오일

20ml | 130,000원대

자음생크림
강력한 인삼 결정체가 피부 재생력과 방어력을 키워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강력한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신중한 질감)

60ml | 250,000원대

자음생마스크
자음생크림의 성분과 더블 캡슐 시트™가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크리미 시트 마스크

5매 | 120,000원대

진설 라인

진설클렌징폼
진한 거품이 깨끗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 폼

150ml | 60,000원대

진설수
피부 생장력을 강화하는 적응에 건강, 마그 성분을 더해 피부에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 125,000원대

진설에센스
강인한 적응에 진귀한 산양삼 성분을 더해 탄력, 생기 주름을 다각도로 개선해주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80,000원대

진설유액
피부 생장력을 강화하는 적응에 해삼유 성분을 더해 윤곽하고 메이크업 피부를 케어하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에일런

125ml | 140,000원대

진설아이에센스
적응의 강인한 생장력과 골든아이에이징이 시너지가 작용하여 눈가 케어하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아이에센스

25ml | 27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고농축 적응에 복령 성분을 더해 눈가 피부의 힘을 길러주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고귀한 적응과 산양삼의 강인한 생장 에너지가 피부의 힘을 길러주어 환경이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470,000원대

진설마스크
강인한 적응의 생장력으로 다음 날 아침 더욱 맑고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슬리핑 마스크

80ml | 200,000원대

설린 라인

설린수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바탕을 가꿔주는 생기 베이스 스킨 톤리셔

150ml | 75,000원대

설린에센스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피부의 생기를 깨우고 맑은 피부로 가꿔주는 생기 탄력 에센스

50ml | 140,000원대

설린크림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외부 유해 요인과 피부 노화의 징후로부터 케어해주는 생기 탄력 크림

50ml | 150,000원대

수술 라인

수술미스트
즉각적인 청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평온함을 주는 수분 진정 미스트

100ml | 42,000원대

수술크림
시원한 자음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꾸어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수술선펠루이드
(SPF 50+ / PA+++)
수분 공급,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 선펠루이드

50ml | 55,000원대

다함설 라인

다함설크림
단상과 홍삼이 절묘한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 럭셔리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65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백토 성분이 노폐물을 제거해 환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브라이팅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수
자진 피부를 정돈해 주고 미백 효능을 끌어주는 브라이팅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유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유연하고 맑은 피부 상태로 가꾸어주는 브라이팅 로션

125ml |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 주는 브라이팅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기미 · 잡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변 유방 빛까지 케어하는 극소 부위용 스팟 트리트먼트

25ml | 130,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팅 성분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팅 크림

50ml | 135,000원대

자정토닝팩
백상 성분을 담은 젤 포물리가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 바탕을 가꾸어주는 브라이팅 마스크

80ml | 65,000원대

육선 라인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촉촉하고 맑은 안색과 탄력감을 선사해 주는 브라이팅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상백크림
(SPF 50+ / PA+++)
피부를 보호해 잔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안티폴루션 미백 스킨 크림

40ml | 75,000원대

육용팩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프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예율마사지크림
크림과 오일이 조화를 이루어 편안하게 롤링되고 촉촉함과 활력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피핑 마사지 크림

120ml | 55,000원대

여운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 52,000원대

설안팩
묵은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 팩

80ml | 85,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 (리커버리)
병통 성분이 손상된 입술 표면을 촉촉하게 매워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립 마스크

10g | 45,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 (모이스처)
천공 당귀수, 대추 추출물이 매끄럽고 윤택한 입술로 가꾸어주는 립 마스크

10g | 45,000원대

여운 라인

여운오일 5대지향 컬렉션
● 청아지향 ● 백화지향 ● 윤조지향 ● 홍서지향 ● 흑여지향
귀한 한방 성분을 담아 피부에 깊은 영양 보습을 채워주고, 자연 소재에서 영감을 받은 설화수 5대지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라이트오일 리치 타입 페이스오일

20ml | 85,000원대 (라이트 ● ● ● 리치 ● ● ●)

명외보초염플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의 힘을 보충하고 윤곽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8주 케어 안티에이징 염플

8ml x 4 | 200,000원대

에빛크림
빛 걸 윤으로 6(사)지 존을 밝혀 하루 종일 품격 있는 기색을 유지하는 빛 크림

50ml + 20ml | 150,000원대
튜브 20ml | 50,000원대

소선보크림
(TPF 40 / SPF 30 / PA++)
빛과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에이징 데이 크림

50ml | 150,000원대

탄력보크림
자신체™와 5가지 한방 오일로 안락한 목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꾸어주는 안티에이징 보크림

60ml | 80,000원대

백옥 보석 마사지
얼굴과 목, 바디까지 마사지를 해 리프팅 케어와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100% 백옥 소재 마사지패드 케어 겸용

240,000원대

스페셜 라인

순행클렌징워터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밀끔히 없애주는 촉촉한 저자극 수분 클렌징 워터

200ml | 38,000원대
400ml | 63,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신뜻한 사용감의 오일이 노폐물과 메이크업 잔여물을 물론 미세먼지까지 없애주는 수분 탄력 클렌징 오일

200ml | 42,000원대
400ml | 70,000원대

순행클렌징폼
수분을 가득 머금은 거품이 피부 노폐물은 물론 미세먼지까지 없애주는 마일드 리퀴드 클렌징 폼

200ml | 37,000원대
400ml | 62,000원대

궁중비누 - 소나무
청량한 소나무 향이 마음과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40일 숙성 프리미엄 비누

100g | 25,000원대

궁중비누 - 홍삼
깊은 한방 향이 활력을 선사하며, 항산화 효능의 홍삼전액을 함유한 40일 숙성 프리미엄 비누

100g | 25,000원대

궁중비누 - 삼귀
싱그러운 삼귀 향이 기분을 개뻗고 청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40일 숙성 프리미엄 비누

100g | 25,000원대

궁중비누 - 매화
백매화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며, 깨끗하고 청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40일 숙성 프리미엄 비누

100g | 25,000원대

바디 & 헤어

동백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핸드크림 5대향 컬렉션
● 청린향 ● 백은향 ● 금운향 ● 홍과향 ● 흑진향
귀한 한방 오일이 건조한 손에 깊은 보습과 윤기를 선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라이트 & 리치 타입 핸드크림

40ml | 30,000원대 (라이트 ● ● ● 리치 ● ● ●)

핸드워시 백은향
한방 오일과 고보습 젤 포물리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은은한 매화 향이 기분 좋게 맡겨주는 핸드워시

300ml | 36,000원

핸드워시 흑진향
한방 오일과 고보습 젤 포물리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묵직하고 풍부한 향이 활력을 선사하는 핸드워시

300ml | 36,000원

바디로션 백은향
매화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향기가 기분을 맑게 해주고, 부드럽게 몸을 감싸 피부에 보습과 탄력, 윤기를 선사하는 바디로션

250ml | 60,000원대

바디워시 백은향
매화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고, 마일드한 젤 포물리가 피부에 촉촉함을 남기는 바디워시

250ml | 40,000원대

MEN

리프레싱클렌징폼
천연 피부더더 성분과 조일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럽 겸용 클렌징 폼

150ml | 30,000원대

본운에센스
주름, 탄력, 촉촉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안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본운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본운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씨 오일 성분의 고보습 안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대

릴렉싱 UV 프로텍터(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 40,000원대

에센셜 샴푸
천삼화 홍삼이 활력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마시는 홍삼 샴푸

20g x 30 | 170,000원대

메이크업밸런서 1호 라이트 핑크 2호 라이트 퍼플 3호 라이트 그린  메이크업밸런서 (SPF 34 PA++) 피부 결과 피부 톤으로 밸런싱하는 메이크업밸런서 35ml 65,000원대	CC 1호 핑크 베이지 2호 미디엄 베이지  CC유액 (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 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60,000원대	컨실러 스틱 1호 미디엄 핑크 2호 미디엄 베이지  에센셜 컨실러 스틱 부드럽게 도포되어 얼굴에 넓게 퍼져 있는 결장까지 한번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 5g 40,000원대	쿠션 No.11 포슬린(핑크) No.15 아이보리(핑크) No.17 아이보리(베이지) No.21 내추럴(핑크) No.23 내추럴(베이지) No.27 샌드(핑크) No.27 샌드(베이지) No.31 허니(핑크) No.33 허니(베이지) No.37 엠베(베이지)  퍼펙팅쿠션 (SPF 50+ / PA+++) 오래 지속되는 가볍고 미세한 커버와 촉촉하고 윤기 있는 마무리로 완벽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커버 윤기 쿠션 15g x 2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11호 포슬린(핑크) 15호 아이보리(핑크) 17호 아이보리(베이지) 21호 내추럴(핑크) 23호 내추럴(베이지) 25호 샌드(핑크)  자정 브라이팅닝 쿠션 (SPF 50+ / PA+++) 진주빛 광채로 맑고 희사한 피부빛을 선사하는 자정미백 쿠션 14g x 2 68,000원대	11호 페일 핑크 13호 라이트 핑크 17호 라이트 베이지 21호 미디엄 핑크 23호 미디엄 베이지 25호 딥 베이지 33호 다크 베이지  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절고 건강한 동안 빛을 위한 안티에이징 쿠션 15g x 2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1호 소프트 화이트  파우더 포 쿠션 피부 위에 공기처럼 세팅되어 방금 메이크업한 듯한 산뜻함을 유지시켜주는 파니시 파우더 8g 65,000원대	1호 레드앤드 피치  멀티 쿠션 하이라이어터 피부에 생기 물품을 선사하는 필 베이스 겸 하이라이어터 8g 40,000원대
--	--	--	--	---	--	---	--

에서 메이크업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에서 파운데이션[리퀴드] (SPF 15 / PA+) 3중 보습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 30ml 55,000원대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에서 파운데이션[크림] (SPF 20 / PA++) 영양 크림을 바른 듯 매끄럽게 커버해주는 크림 파운데이션 30ml 55,000원대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에서 스킨케어(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에서 트윈케이크 (SPF 30 / PA+++) 단단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 11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에서 파우더 심세한 파우더가 희사한 톤으로 가벼운 파우더 20g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자정 메이크업 1호 희사한 색 2호 자연스러운 색  자정 에센스BB(SPF 50+ / PA+++) 하루 종일 밝고 희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브라이팅닝 에센스 BB 30ml 60,000원대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자정 미백UV팩트(SPF 50+ / PA+++) 자외선과 유분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브라이팅닝 팩트 9g 60,000원대(리필 45,000원대)
---	---	---	--	--	---	--

쉬어 래스팅 메이크업 11호 포슬린(핑크) 15호 아이보리(핑크) 17호 아이보리(베이지) 21호 내추럴(핑크) 23호 내추럴(베이지) 25호 샌드(핑크)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 (SPF 25 / PA++) 쉬어 하이dra 포뮬러로 화사함을 선사하는 파운데이션 30ml 58,000원대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쉬어 래스팅 젤 쿠션 (SPF 35 / PA+++) 엘링 젤 텍스처와 마이크로 망으로 피부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12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진설 윤메이크업크림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90,000원대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진설 윤파운데이션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촘촘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 13.5g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진설 윤팩트 영온 파우더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 10g 60,000원대	1호 핑크 하모니 2호 코랄 하모니  래디언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희사한 형색과 윤기 있는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 10g 60,000원대	1호 애프리콧 세럼 2호 플라범 세럼 3호 플라워 핑크 4호 림즈 레드 5호 플라범 코랄 7호 딥 베리  에센셜 림세럼 스틱 고보습 보습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꿔주는 데일리 림 케어 3g 40,000원대	9호 글로우 오렌지 10호 비버드 핑크 11호 레드앤드 레드 12호 소프트 오렌지 38호 시름 핑크 59호 어텀 레드  아이브로우 퍼팩터 부드러운 발색으로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브로우 오렌들 0.3g 20,000원대 (리필 14,000원대)
---	---	---	---	--	---	---	--

플래그십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21호 미디엄 핑크 23호 미디엄 베이지  윤조에센스 랜턴컬렉션 자음단*이 피부 윤기를 선사하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친근하게 에센스 60ml 90,000원대 120ml 150,000원대	자음수 랜턴컬렉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적시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친근하게 에센스 125ml 57,000원대	자음생유액 랜턴컬렉션 흡수되어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소프트 로션 125ml 63,000원대	자음생크림 랜턴컬렉션 인삼 광장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랜턴컬렉션 인삼 광장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산뜻한 질감) 60ml 250,000원대	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전통 인사 7가방에서 영감을 받은 상상성 문양을 새기고, 건강한 동안 윤기 피부로 표현해주는 안티에이징 쿠션 15g x 2 85,000원대	매화지향 향유 백매화의 생령력을 담은 은은한 향으로 지친 피부와 마음에 에너지를 선사하는 오일 타입의 향수 스프레이 30ml 130,000원대	윤조지향 향수 스프레이 나무의 따뜻함을 남기는 동양적인 우디 계열의 기품 있는 향이 담긴 향수 스프레이 15ml x 2ea 120,000원대	매화지향 향수 스프레이 백매화의 생령력과 고귀함을 담은 향이 담긴 휴대기 간편한 향수 스프레이 15ml x 2ea 120,000원대
--	--	---	---	---	---	---	--	---

윤조지향 향초 나무의 따뜻함으로 내면의 감성을 깨우는 기품 있는 향의 스킵스 향초 200g 100,000원대	매화지향 향초 백매화의 고귀한 향으로 궁정적 애처를 선사하는 스킵스 향초 200g 100,000원대	윤조지향 포푸리 한방 원료와 백매화의 따뜻하고 기품 있는 향의 조화로 공기를 고급스럽게 채워주는 한방 포푸리 100g 120,000원대	매화지향 포푸리 한방 원료와 백매화의 생령력이 담긴 향의 조화로 공기에 생기를 채워주는 한방 포푸리 100g 120,000원대	에센셜 밤 바다부터 헤아리지 설해수의 홀리스틱 뷰티를 경험할 수 있는 멀티 보습 밤 10g 40,000원대	딤 릴렉스 밤 천연 성분으로 지친 피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릴렉스 밤 10g 40,000원대	립 틴트 밤 촉촉하고 부드러운 입술로 기뻐주는 보습 림트 밤 10g 40,000원대	홍삼발효차 제주 삼나무와 숙성한 후 발효차에 귀한 홍삼을 블렌딩한 발효차 1.5g x 10ea 25,000원대	매화차 눈 속에서 피어나 불의 화장을 전하는 청초하고 우아한 매화를 담은 매화 허브차 1g x 10ea 25,000원대	세차 곡우 절기에 제주 차밭에서 채집된 어린 찻잎을 담은 전통 차실차 1.5g x 10ea 20,000원대	삼다연 제주영글 제주 삼나무와 숙성한 후 발효차에 제주 영글을 더한 블렌딩 티 1.8g x 10ea 15,000원대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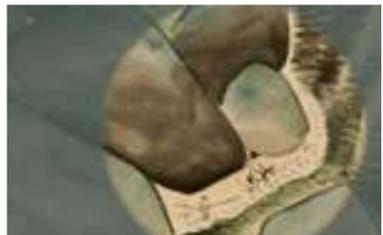
삽도 예술도 간결하고 단출하게
〈SIMPLE 2019: 집〉

'집'은 장욱진 화백이 생전에 즐겨 그렸던 소재이며 집 짓기를 좋아했던 그에게 집은 곧 삶이자 작품이었다. 장욱진의 집 그림과 현대작가 6인의 작업이 다채롭게 채워진 미술관으로 산책을 떠나보자.

평생 '단순한 그림'을 그렸던 화가 장욱진은 박수근, 이중섭과 함께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서양화의 거장 중 한 명이다. 가치, 가족, 새, 나무, 아이, 집 등 지극히 소박하고 한국적인 소재를 순수하고 동화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깊은 생명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하고 일생을 작품 활동에 바친 그 정신을 기리며 건립된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은 매년 〈심플(SIMPLE)전〉을 개최해왔는데 올해는 개관 5주년을 기념해 〈SIMPLE 2019: 집〉전을 연다. 화백의 심플 철학을 집에 투영해 살펴보는 이번 전시는 '집'을 주제로 그린 장욱진의 유화 20여 점을 비롯해 김태호, 김태성, 민병걸, 나점수, 박미나, 이원우 등 6명 작가의 회화, 설치 작품, 벽면 작업 등 다양한 장르와 분야에 걸쳐 총 10여 점이 더해졌다. '김수근건축상'을 수상한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의 간결한 조형미를 함께 감상하며 여름날의 감성을 충전하기에 좋은 전시다. 일시 8월 18일까지 장소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문의 031-8082-4245

자동차 있는 풍경(Scene with a Car), 캔버스에 유채, 40x30cm, 1953, 개인 소장

전시 (화가의 시선, 우리 강산을 그리다)



그림의 창작자인 화가에 초점을 맞추어 실경산수화의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다. 정선, 김홍도를 비롯하여 조세걸, 김윤겸 등 17세기부터 19세기에 활동한 화가들의 초본 및 화첩, 두루마리(화권), 부채, 병풍 등을 통해 각양각색으로 펼쳐진 우리 산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일시 7월 23일~9월 22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문의 02-2077-9483

뮤지컬 (스웨그에이지:외쳐, 조선!)



가상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정형시 중 하나인 시조를 랩과 힙합으로 표현하고, 전통음악과 뮤지컬 요소를 결합했다. 재치 넘치는 대사, 흥이 넘치는 음악, 창의적인 안무가 신선한 소재 속에서 어우러지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일시 6월 18일~8월 25일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문의 1666-8662

전시 (박서보: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박서보는 '묘법' 연작을 통해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살아있는 거장이다. 이번 전시는 박서보의 1950년대 초기 작품부터 2019년 신작까지 총 129점을 소개하며 묘법을 지속해온 수행자와 같은 그의 70년 화업을 조망하는 대규모 회고전이다. 일시 9월 1일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문의 02-3701-9500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본윤에센스(5명)

다섯 가지 한방 성분을 복합 처방한 '정양단'과 인삼, 맥문동 추출물이 남성 피부를 윤곽하게 가꿔줍니다. 피부 본연의 자생력을 키워 주름과 탄력, 칙칙함을 관리해 노화를 근본부터 예방하고 워터 젤 타입이라 손에서 흐르는 불편함이 없이 촉촉한 수분을 듬뿍 전달합니다.



진설아이에센스(3명)

고농축 적송 성분과 글루타미카메이커마사지가 눈가 피부 컨디션을 섬세하게 케어합니다. 순금마사지는 눈가 부기와 칙칙함을 관리하고, 강력한 보습력과 가벼운 제형은 눈가 피부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 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응모 마감 2019년 9월 15일까지
 증정 선물 본윤에센스, 진설아이에센스
 당첨자 발표 2019년 가을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9년 5/6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윤조에센스 스타컬렉션(5명)

- 김경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모효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윤석준 서울시 서대문구 중기로
 임예은 서울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전정애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진설아이크림(3명)

- 김미옥 전북 고창군 중거리당산로
 신은경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최규리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Sulwhasoo> 매거진 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그 동안 격월(연 6회)로 발행되었던 <Sulwhasoo> 매거진이 92호부터 계간(연 4회)으로 변경되어 독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앞으로도 <Sulwhasoo> 매거진은 보다 깊이 있고 품격 높은 콘텐츠로 독자 여러분에게 만족을 드리려 합니다. 설화수를 사랑해주시는 VIP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5/6월호 당첨자 선물은 7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雪花秀

Sulwhasoo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의 생명력으로 탄탄해진 생기를 살리다 설화수 설링크림

몸의 피로가 쌓이듯 피부도 피로가 쌓인다는 사실 아셨나요?
 피로가 쌓인 피부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나이와 상관없는 노화가 진행됩니다
 한겨울에 피어나는 매화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피부피로에 맞서는 설화수 설링크림
 이제, 매일 지치지 않는 탄탄한 생기피부를 시작하세요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7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현대백화점 가든파이브점 02-2673-2133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032-430-1479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80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8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861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진주점 063-289-3176
- 뉴코아 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기간
2015.07.01~2024.09.0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40861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 0 □ 4 □ 1 □ 5 □ 6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설화지혜(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피부 섬기기(1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新 장인을 만나다(1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공간미감(2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진너다(2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2. 누리다

설화인(3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어우러지다(4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풍경(5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보감(5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아름다운 기행(6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수를 말하다(6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공간(7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3. 익히다

배움의 기쁨(7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한국의 멋(8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애장(8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읽다(8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집 안 단장(9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몹 단장(9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본윤에센스 진설아이에센스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여름호 <Sulwhasoo>의 엽서 응모 마감은 9월 15일입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애독자엽서 추첨 이벤트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성별, 나이, 전화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애독자엽서 선물 발송 * 보유 및 이용 기간: 애독자엽서 응모 마감으로부터 3개월

고객님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취급위탁을 받는 자: 누리원기획, 가이미디어 * 취급위탁을 받는 업무: 엽서 이벤트 참여자 확인 및 당첨자 게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엠펙화점 춘천점	033-257-4129
AK플러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롯데 김포공항 면세점	02-2669-6730
롯데 명동 면세점	02-759-6662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02-3213-3865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신라 장충 면세점	02-2230-3597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4488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T2 부띠끄	032-743-2151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T2	032-743-2168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신라 제주공항 면세점	064-720-0055
HDC 신라 용산 면세점	02-490-3351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9
신세계 강남 면세점	02-6288-0767
신세계 센텀 면세점	051-775-3141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5784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탑승동	032-743-5784
시티플러스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5718
에스엠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1570
에스엠 인사 면세점	02-2120-6210.9
그랜드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0543
두타 동대문 면세점	02-3399-9236
동화 광화문 면세점	02-399-3123
한화 여의도 면세점	02-2136-2779
현대 무역센터 면세점	02-2142-6220
JTO 중문 면세점	064-766-9019

